

제 4장 고려시대의 고성

제 1절 나말여초 사회변동과 고성 지역사회의 재편

고려시대 고성현은 오늘날 고성군과 통영시를 그 권역으로 삼고 있었다. 조선초까지 고성군의 권역과 그 읍격의 변화과정은 다음의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연혁조에서 간략하지만 드러나 있다.

○ 고성군(固城郡)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 도 그대로 쓴다. 영현(領縣)이 셋인데, 문화량현(蚊火良縣)은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사수현(泗水縣)은 본래 사물현(史勿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사주(泗州)이다. 상선현(尙善縣)은 본래 일선현(一善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영선현(永善縣)이다.(『삼국사기』 권 34, 잡지 제3, 지리 1, 신라 강주 고성군)

○ 고성현은 본래 소가야국(小伽耶國)으로 신라가 차지한 후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가 경덕왕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郡)으로 하였다. 성종 14년(995)에 고주자사(固州刺史)로 했다가 뒤에 현(縣)으로 강등시켰다. 현종 9년(1018)에 거제에 소속하게 했다가 뒤에 현령을 두었다. 원종 7년(1266)에 군(郡)을 주(州)로 승격시켰다. 충렬왕 때 남해(南海)에 병합했다가 얼마 후 예전대로 했다. 별호는 철성(鐵城)이다.(『고려사』 권 57, 지 11, 지리 2, 경상도 고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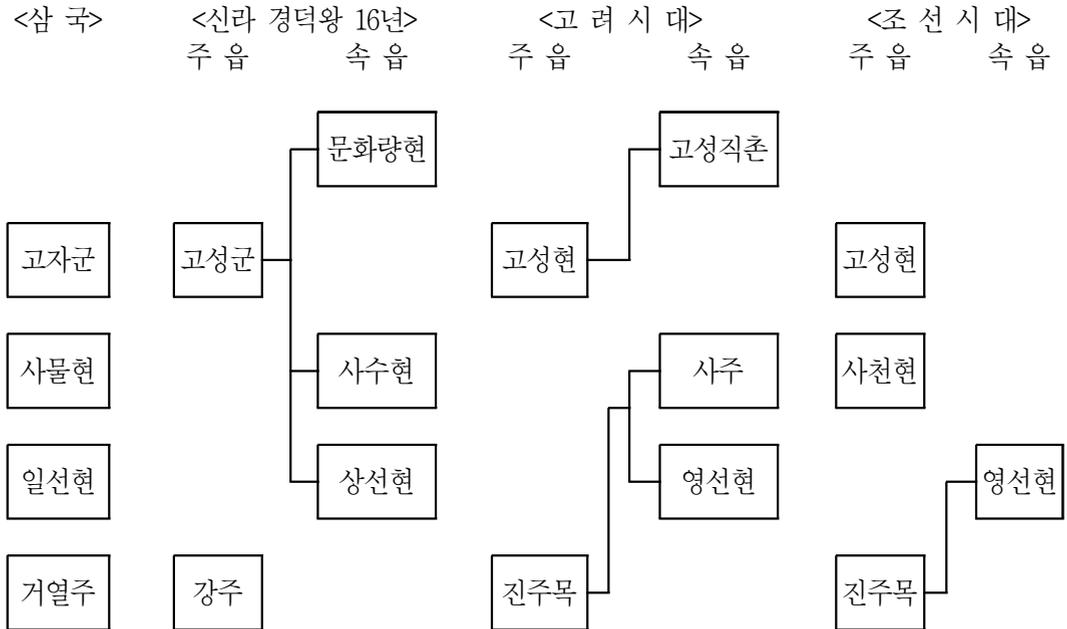
○ 고성현은 옛 고자군(古自郡)으로, 신라때 고성군(固城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공양왕 때인 홍무(洪武) 신미년(1391)에 고성현으로 강등시켰다.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으며, 별호(別號)는 철성(鐵城)이다.(『경상도지리지』 고성현)

○ 본디 소가야국(小伽耶國)인데, 신라에서 이를 취하여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고, 경덕왕이 고성군(固城郡)으로 고쳤다. 고려에서 현(縣)으로 고쳐서 현종 무오년에 거제(巨濟)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현령(縣令)을 두었는데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 별호(別號)는 철성(鐵城)이다.(『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

본래 소가야국이었던 고성은 신라에 병합되면서 고자군으로 편제되었다가 경덕왕 16년 전국적 군현개편에 따라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되는 한편, 문화량현(蚊火良縣), 사수현(泗水縣), 상선현(尙善縣) 등 3개 현을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문화량현은 현재 고성 상리면(上里面) 일대로, 고려시대에는 폐현이 되어 고성군의 직촌이 되었고, 사수현은 고려시대 사주(泗州)로 개칭되어 진주의 속현이 되었다. 상선현은 고려초 영선현(永善縣)으로 개칭되어 현종9년 군현개편때 진주의 속현으로 이속되었다. 경덕왕 군현개편때 고성군의 영현이었던 3개의 군현은 고려시대에 문화량현을 제외하고 2개의 고을이 모두 진주로 이속된 셈이다.

<고성군의 변천>



고성군은 신라에서 고려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력으로 등장한 호족(豪族)의 세력권 안에 놓이게 된다. 고성 자체에서 호족이 등장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인근의 진주 지역에 호족이 등장하여 이들이 고성 지역도 그 관할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 지역인 강주(康州)에는 다음과 같이 호족이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 강주장군(康州將軍) 윤웅(閔雄)이 자기 아들 일강(一康)을 인질로 보내자, 일강에게 아찬(阿燦) 벼슬을 주고 경(卿) 행훈(行訓)의 누이동생을 처로 삼게 했다. 또 낭중(郎中) 춘양(春讓)을 강주(康州)로 보내 귀부를 설득했다.(『고려사』 태조 3년 정월)

○ 강주장군 윤웅(閔雄)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경명왕 4년(920) 2월)

○ 후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천주절도사(泉州節度使) 왕봉규(王逢規)도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경명왕 8년 정월)

○ 지강주사(知康州事) 왕봉규가 사신 임언(林彦)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니, 명종이 중흥전(中興殿)에 불러 접견하고 물품을 내려 주었다. 강주 관할의 돌산향(突山鄉) 등 4개 향(鄉)이 태조에게 귀순하였다.(『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경애왕 4년(927) 4월)

○ 강주(康州)의 원보(元甫) 진경(珍景) 등이 고자군(古子郡)으로 양곡을 운반하는데 견훤이 몰래 군사를 보내어 강주를 습격하니, 진경 등이 돌아와 싸우다가 패하였는데 죽은 자가 3백여 명이었고, 장군 유문(有文)은 견훤에게 항복하였다.(『고려사』 권 1, 세가, 태조 11년(928) 5월 16일 경신)

진주 일대에서는 강주 장군 윤웅과 유문, 그리고 천주절도사 왕봉규가 이 지역 호족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¹⁾ 특히 왕봉규는 해상무역을 통해 중국의 후당과 교류하는 등 그 세력이 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말여초 고성 지역은 이들 호족의 세력권 안에 포함되고 있었다.

진주지역에 형성된 호족은 후삼국이 성립되는 시기에 처음에는 고려에 귀순하는 형식을 취했다. 강주장군 윤웅(閔雄)이 태조 3년(920)에 자기 아들 일강(一康)을 고려에 인질로 보내고, 고려에서는 일강에게 아찬 벼슬을 주는 한편, 행훈(行訓)의 누이동생으로 그의 처를 삼게 한 것이 그것이다. 927년에는 돌산향 등 강주 관할 4개의 향이 고려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강주장군 유문은 태조 11년(928) 후백제 견훤에게 항복하고 있다. 이제까지 고려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진주일대 호족은 견훤의 공략에 따라 후백제 권역으로 편입

1) 나말여초 진주지역의 호족과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이현모, 「나말여초 진주지역의 호족과 그 동향」, 『역사교육논집』 30, 2004 참조.

된 것이다. 이는 진주 지역뿐 아니라 경남 연안일대가 후백제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반적 추세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진주 호족의 관할 하에 있던 고성 지역도 이후 후백제 영향권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후삼국 말 이같이 고성을 비롯한 경남 연해지역이 후백제 권역으로 편입되었던 경험은 고려가 후삼국 통합에 성공한 이후 지방을 편제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말여초 호족이 지방을 통제하는 가운데 그 관할 하에 들어갔던 고성 지역은 성종 2년 12목 설치와 함께 진주 관할이 되었다. 이어 성종 14년 10도제가 시행되면서 고성지역에도 지방관이 비로소 파견되기 시작했다. 당나라 10도제를 채용한 성종 14년(995)의 고려 10도는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해양도(海陽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溟西道) 등 10도를 설치했는데, 이때 10도는 전체 128주(州)·449현(縣)·7진(鎭)을 각각 나누어 관할함으로써 상급의 지방통치기구가 되었다.

	관내	중원	하남	강남	영남	영동	산남	해양	삭방	패서	합계
주(州)	29	13	11	9	12	9	10	14	7	14	128
현(縣)	82	42	34	43	48	35	37	62	62	4	449
진(鎭)										7	7

성종 14년의 10도제 하에서 고성은 산남도 관할이 되었다. 당시 산남도에는 10개의 주와 37개의 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성은 10개 주 가운데 하나인 고주(固州)로 설정되어 그 수령으로 자사(刺史)가 파견되었다.

성종 14년 당시 10도제 하에서 주와 현에 파견된 수령은 절도사-단련사-자사로 서열화되어 파견되었는데, 고성은 자사 파견 지역이었다. 당시 자사가 파견된 곳도 다음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몇 안되는 곳들이었다.

군현명	성종 14년	현종9년	이후
固城縣	固州刺史	거제 속읍	문종대 이전 현령
堤州	堤州刺史	원주 속읍	예종 원년 감무
鎭州	鎭州刺史	청주 속읍	원종 10년 의령군(義寧郡)
牙州	仁州刺史	천안 속읍	뒤에 감무
嘉林縣	林州刺史	가림현령	지임주사
永州	永州刺史	경주 속읍	감무, 지주사
河陽縣	河州刺史	경주 속읍	감무

密城郡	密州刺史	밀성군	공양왕2년 밀양부
威安郡	威州刺史	금주 속읍	명종 2년 감무. 공민왕 22년 주읍 승격
龍宮郡	龍州刺史	상주 속읍	명종2년 감무
永同郡	稽州刺史	상주 속읍	명종 6년 현령
一善縣	善州刺史	상주 속읍	인종 11년 현령
安東府	吉州刺史	知吉州事	도호부 승격
寶城郡	貝州刺史	寶城郡	
海陽縣	光州刺史	海陽縣令	光州牧

성종 14년 10도제 하에서 고성에 자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10도제 실시 당시 전국의 군현수는 580여 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자사 등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77 곳에 불과했다. 산남도의 경우 47개의 군현이 있었으나, 진주(절도사), 함양·경산(도단련사), 고성·함안(자사) 등 5곳에만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고성은 그 만큼 산남도 내에서 요충지에 해당했다. 그런데 현종 9년의 군현개편에서 고성은 거제의 속읍(屬邑)이 되었다. 고성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거제로부터 통할되고 있었다.

자사가 파견되었던 곳 가운데 아주를 제외하고는 고성을 비롯해서 대부분 신라때 주읍으로 기능했던 곳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현종 9년의 개편에서는 가림, 밀성, 안동, 보성, 해양 등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속읍으로 편제되고 있다. 현종 9년의 군현개편이 대읍 중심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초까지 지방관 파견되었던 곳들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읍으로 편제된 것이다.

고성군의 속읍화도 이 같은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지만, 나말여초 사회변동기에 지역사회의 대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진주권역을 축소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 고려 통일 직전까지 진주 지역에도 윤웅, 왕봉규, 유문 등 호족세력이 등장하였고 이 지역은 후백제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고려 통일후 정부는 이들 후백제 권역에 속했던 진주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다.

고성군의 속읍화와 함께, 이전까지 고성군의 영현(領縣)이었던 문화량현, 사수현, 영선현의 소속관계도 변화하였다. 문화량현은 이미 폐현이 되어 고성군의 직촌이 되었으며, 사수현은 현종 9년 이전에 진주의 속현이 되었고, 영선현은 이 때 고성군이 속읍화되면서 고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진주의 속현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뒷날 주읍(主邑)으로 승격된 뒤에도 속읍을 거느리지 않은 군현으로 남게 되었다.

현종 9년의 군현개편에서 거제현의 속읍으로 전락했던 고성은 곧 주읍으로 회복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등에서는 고성현이 언제 주읍으로 그 읍격을 회복했는지 전하지 않고 있

어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고려사』 식화지에 수록된 문종대 녹봉지급 규정에는 26석 10두의 녹봉을 받는 대상에 고성현령이, 16석 10두를 받는 대상에 고성현위(縣尉)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문종대에 고성현에는 현령과 현위 2명의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종대의 녹봉 규정이 문종 30년에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성현이 주읍으로 승격하는 것은 최소한 문종 30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명확한 시기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다른 지역의 읍격 변동과 연관하여 그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현종 9년 군현 개편 이후 문종 30년 이전까지 부분적으로 군현의 변동이 있었던 시기는 현종 21년, 정종(靖宗) 2년, 문종 16년, 문종 23년 등이다. 현종 21년에는 경주가 동경유수(東京留守)로 복구되고, 길주(吉州)를 안동부로 개칭했다. 정종 2년에는 성종 14년 이래 승주(昇州)로 지칭되었던 오늘날 순천을 승평군(昇平郡)으로 개칭하는 등 군현명칭의 변동이 있었다. 문종 16년에는 개성부가 복구되면서 평주 속현이었던 우봉군이 개성부의 속읍으로 편제되는 등 그 속읍 12개 군현의 영속관계에 변화가 있었으며, 목종 원년부터 호경으로 지칭되었던 평양이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으로 개칭되었다. 문종 23년에는 경기제의 개편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고성(高城)이 주읍으로 승격된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빠르면 현종 21년 경일 것이고 늦어도 문종 23년경에는 고성이 거제의 속읍에서 주읍으로 승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종대 이후 주읍으로서 읍격을 유지했던 고성현은 원종 7년부터 고주(固州)로 다시한번 읍격이 승격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지역 토성이었던 고성(高城)이씨 이준비(李尊庇)가 원종초에 과거에 합격하여 국왕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때문일 수도 있다. 원종 7년 11월부터 몽고가 일본과의 교섭을 요청하자 고려에서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송군비(宋君斐), 시어사(侍御史) 김찬(金贊) 등에게 명해 몽고 사신 흑적(黑的)과 은홍(殷弘) 등을 데리고 거제도까지 가게 되는데²⁾, 이 일본교섭에 대비해 거제로 가는 길목인 고성현을 고주로 승격시킨 것인지 모른다.

고주로 승격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고성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충렬왕 때에는 일시적으로 남해현에 병합된 바 있으며, 고려말에는 현령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충렬왕 때 남해현과 병합된 것은 충렬왕 27년 군현 개편 때의 일이다. 이 해에 전국에 걸쳐 군현 병합조치가 있었는데, 가조 지역으로 이동한 거제현과 관성군이 병합되었고, 연산군이 가림현에, 고부군이 영광군에, 금양현이 통주에, 강화현이 인주에, 의성현이 대구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된다.³⁾ 이 때의 군현 병합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인근 군현간의 병합이었다.

2) 『고려사』 권 26, 세가, 원종 7년 11월 계축.

제 2절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의 권역과 구성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의 권역은 오늘날 고성군과 통영시 전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6년(광무 10) 고성의 광이면(光二面), 도선면(道善面), 춘원면(春元面) 등 3면으로 통영시의 전신인 용남군(龍南郡)이 만들어져 분리되었다. 대신에 진주(晉州)의 영선(永善)·오읍(吾邑)·영이(永耳)·개천(介川)·양산(陽山)·비라(非羅) 등의 리(里)가 고성으로 합속되었고, 1914년에는 진주의 금곡면(金谷面)의 덕계(德溪)·성산(省山)·석계(石界) 등 3동(洞)과 사천(泗川) 수남면(洙南面)의 관지동(官旨洞), 창원(昌原) 진전면(鎭田面) ; 옛 진해현(鎭海縣)의 나동(羅洞)·선동(仙洞)이 다시 고성으로 옮겨왔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의 권역은 현재 고성군에서 진주, 사천, 창원으로부터 이속된 지역들이 제외되고, 통영시의 전신인 용남군이 된 지역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고려시대 고성의 사방경계를 지리서에서 확인하면 다음 표와 같다.

방향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	거제 견내량(見乃梁) 40리	거제 견내량 40리	거제현 경계까지 53리
서	사천 가곡(可谷) 26리120보	사천 26리	진주 경계까지 25리, 사천현 경계까지 40리
남	대해(大海) 1리	대해(大海) 1리	바닷가까지 1리
북	진해 우비현(亏非峴) 33리160보	진해(鎭海) 33리	鎭海縣경계까지 43리

『경상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의 고성 사방경계의 규모는 동일한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그것은 30% 정도 확장된 규모이다. 이는 고성의 경우만이 아니라 전국 군현 사방경계의 거리 리(里)가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에서는 이같이 확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이후 여지승람이 편찬될 때까지 1세기 동안 고성의 군현 규모가 확장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성군의 군현 영역이 실제 확장되어서 여지승람에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경상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의 리보(里步)수는 1리 360보, 1보 6척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여지승람의 리보수는 이 기준으로 계산된 것 같지 않다. 세종말에 1보 5척이 그 기준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것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동쪽으로 고성군의 경계가 거제현까지 50리라고 했지만 이는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박종기, 「14세기 군현구조의 변동과 향촌사회」,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164~166쪽.

고성현 소재 해빈부곡(海濱部曲)이 동남쪽으로 67리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나 춘원면의 영역이 읍치로부터 30-70리 내였다는 사실에서 고성현의 거제현까지 동쪽 경계를 70리 정도까지 확장해 보아야 한다. 서쪽 경계도 진주까지 25리, 사천까지 40리로 기록하고 있으나, 고성 서쪽에 위치했던 하리이운(下里二運)면의 영역이 읍치로부터 40-65리 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65리까지로 확장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쪽의 경계는 진해현까지 43리라 했는데, 고성 북쪽에 위치했던 구만면의 영역 35-45리 내였다는 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고성군의 동과 서는 각각 거제와 사천을 경계로 하여 130여리, 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남북 45리 정도 규모였다.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지역 형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같이 조선초 지리서에 수록된 고성의 경계는 고려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사방경계로 하여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는 고성현과 그 관할의 21 개 정도의 부곡제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고려시대 수령이 파견되는 주읍(主邑)으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던 고성현은 전국에서 속읍(屬邑)을 거느리지 않은 몇 고을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 수록된 고려시대 전국 군현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주읍(主邑)										속읍(屬邑)					
	경	대도호부	목	대도독부	도호부	지사부	군	현	진	계	무속읍 군현	속부	속군	속현	계	총계
왕 경	1									1	(0)			12	13	14
양광도	1				1	1	5	3		14	(0)		1	75	97	111
경상도	1		3			2	6	3		14	(1)	1	22	89	114	128
전라도			2			2	5	8		17	(3)		24	74	87	104
교주도			2				3			3	(0)		13	20	25	28
서해도		1					3	2	1	8	(1)		5	14	17	25
동 계			1		1	2	13	8	16	41	(36)		3	17	17	58
북 계	1	1		1		2	26	6	12	48	(47)			4	4	52
합계	4	2	8	1	2	9	61	30	29	146	(88)	1	68	305	374	520

고려시대 지방행정 체계인 군현체제는 크게 일반 군현 영역의 군현제와 향·소·부곡 등 부곡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군현제 영역은 다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읍(主邑 ; 주군,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읍(屬邑 ; 속군, 속현)으로 구분되어 주읍이 속읍을 관할하는 체계였다. 부곡제 영역은 주읍과 속읍의 구분없이 군현마다 분포되었다.

주읍은 전국 520개 군현 가운데 146개로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군사 거점 지역인 동계와 북계에 집중되고 있었다. 양계지역과 왕경을 제외한 5도의 주읍은 56개에 지나지 않는다. 속읍 374개의 대부분은 5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것도 경상·양광·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읍이 관할하는 속읍 수는 군현에 따라 편차가 있었고, 최소 1개에서 20 여개에 이르기까지 군현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참고로 경상도 지역 주읍의 관할하고 있던 속읍 수를 통계하면 다음과 같다.

주읍	속읍수	주읍	속읍수	주읍	속읍수
동경(東京)	14	밀성군(密城郡)	6	거제현(巨濟縣)	3
울주(蔚州)	2	진주목(晉州牧)	9	상주목(尙州牧)	24
예주(禮州)	6	합주(陝州)	12	경산부(京山府)	15
금주(金州)	5	고성현(固城縣)	0	안동부(安東府)	14
양주(梁州)	2	남해현(南海縣)	2	합 계	114

고성현은 경상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속읍을 거느리지 않는 고을이었다. 고려시대 주읍은 동계와 북계의 주진(州鎭)을 제외하고 대부분 속읍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전라도의 해양현(海陽縣), 능성현(凌城縣), 탐라현(耽羅縣) 등 3개 주읍과 서해도의 백령진(白翎鎭),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고성현이 주읍이지만 속읍을 관할하고 있지 않았다.

속읍을 거느리고 있지 않은 주읍이 동계와 북계의 주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속읍이 없는 이들 군현은 국경지대나 연해지역 등 군사상 요지에 위치하여 지방행정과 함께 국방의 기능이 주어진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서해도의 백령진이나 전라도의 탐라현의 예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성현은 남해 연안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군사 거점지역으로서 기능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고성의 부곡제 영역

고려시대 고성현에는 속읍이 없는 대신 특수 행정구역으로 이해되는 향·소·부곡 등 부곡제 영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성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던 부곡제 영역은 조선 초 지리서인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 일부 보이고,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서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 소속 향(鄉)이 2이니, 곡산(曲山)과 녹명(鹿鳴)이요, 부곡(部曲)이 1이니, 곤의(坤義)이다. …없어진 소[亡所]가 여섯이니 압점은소(鴨岾銀所)·석지동소(石智銅所)·유식동소(遊息銅所)·우차동소(亏次浦銅所)·달점다소(達岾茶所)·박도구당소(樸島句當所)이다. 위 구당소(句當所)는 수령이 봄 가을에 제사를 거행하는 곳이다.(『경상도지리지』 고성현)

○ 부곡(部曲)이 1이니, 곤의(坤義)이요 【지금은 없어지고 직촌(直村)이 되었다】 , 향(鄉)이 2이니, 곡산(曲山)과 녹명(鹿鳴)이다.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직촌(直村)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고성현)

○ 곤의부곡(坤義部曲) 【현 북쪽 15리】 . 해빈부곡(海濱部曲) 【현 동남쪽 67리】 . 도선부곡(道善部曲) 【현 동쪽 20리】 . 진여부곡(珍餘部曲) 【현 동남쪽 25리】 . 구허부곡(丘墟部曲) 【현 동쪽 30리】 . 죽림부곡(竹林部曲) 【현 동쪽 40리】 . 박달부곡(博達部曲) 【현 서쪽 20리】 . 활촌부곡(活村部曲) 【현 북쪽 20리】 . 궤촌부곡(跪村部曲) 【현 서쪽 50리】 . 발산부곡(鉢山部曲) 【현 동쪽 1리】 . 곡산향(曲山鄉) 【현 동북쪽 20리】 . 녹명향(鹿鳴鄉) 【현 북쪽 30리】 . 어례향(魚禮鄉) 【현 서쪽 30리】 . 보령향(保寧鄉) 【현 서쪽 40리】 . 적진향(積珍鄉) 【현 동쪽 20리】 . 의선향(義善鄉) 【현 북쪽 40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고성현 고적)

위에서 보듯이 고려시대 고성현 소재의 부곡제 영역은 『경상도지리지』에서 향 2, 부곡1, 소 6,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향 2, 부곡 1, 『동국여지승람』에서 부곡 10, 향 6곳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소재의 고성현 향 부곡은 모두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것이어서 중복이고, 『경상도지리지』에 소개되어 있는 없어진 소 가운데 박도구당소는 ‘행제소(行祭所)’ 즉 제사지내는 곳[所]이었다는 점에서 부곡제 영역으로서의 소로 볼 수는 없겠다. 이곳에는 봄 가을 현령이 상박도(上撲島)·하박도(下撲島)·욕지도(欲知島)의 신에게 망제(望祭)를 지내는 관음점사(觀音岾祠)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고려시대 고성현의 부곡제 영역은 부곡이 10곳, 향이 6곳, 소가 5곳 모두 21곳이 된다.

이같은 고성 지역 부곡제의 분포는 당시 전국 군현 가운데 최다 수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부곡제 영역은 모두 800여곳이다. 그 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개성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	동계	북계	계
부곡	0	87	205	81	1	0	5	6	385
향	1	29	34	49	2	7	1	7	130
소	1	75	49	89	16	9	5	0	244
장	0	5	1	0	1	2	0	0	9
처	1	23	2	3	3	2	0	0	34
계	3	219	291	222	23	20	11	13	802

부곡제 지역의 분포는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에 집중되고 있으며, 교주도 서해도 동계, 북계는 분포의 정도가 적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군현 당 평균은 1.4곳 정도이지만, 경상도의 경우는 가장 많아서 군현 평균이 2곳을 넘어서고 있다.

고려시대 부곡제 영역을 많이 확보했던 지역으로는 경기도 수원지방에 해당하는 수주(水州)가 20곳, 충청도 홍주가 14곳, 전라도 남원부가 26곳, 전라도 장흥부가 18곳, 순천지방인 승평군이 15곳 정도 확인된다. 경남 지역에서는 다음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주목이 16, 밀성군이 14곳으로 많은 편에 속하나 고성은 이 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곡	향	소	장	처	계		부곡	향	소	장	처	계
*金州	1	4				5	岳陽縣						
義安郡	1	4	1			6	江城郡	2					2
漆園縣	1	1				2	丹溪縣	1					1
合浦縣							山陰縣			1			1
熊神縣	2					2	泗州			1			1
咸安郡	3		5			8	永善縣	2	1				3
*密城郡	10	3	1			14	宜寧縣	1	1	3			5
靈山縣	3	1	2			6	*陝州			1			1
豐角縣	1					1	冶廬縣	1	1				2
守山縣							三岐縣			2			2
桂城縣							草谿縣			2			2
淸道郡	3					3	新繁縣			1			1
昌寧郡	1	1				2	居昌縣						
玄豐縣	1					1	感陰縣						
*蔚州	1					1	加祚縣						
東萊縣	4	1				5	含陽縣	1		3			4
嶺陽縣							利安縣						
*梁州	4		1			5	*固城縣	10	6	5			21
東平縣							*巨濟縣	3	2		1		6
機張縣	4					4	鵝洲縣						
*晉州牧	9	1	6			16	溟珍縣						
嘉壽縣							松邊縣						
鎭海縣		1				1	*南海縣			1			1
昆明縣	3	2	2			7	蘭浦縣						
班城縣							平山縣						
河東郡							계	73	31	38	1	0	143

* 표시는 주읍임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에 부곡제 영역이 다수 분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향·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그 발생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지역의 출현, 반역 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 집단부락의 발생 등 사회발전에 따른 공동체의 통합과 붕괴, 계급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 한편 다음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 여주목 고적 등신장(登神莊)조의 기록에서는 군현이 되기에는 경지면적과 인구가 모자라는 지역을 향과 부곡으로 편제했다고 한다.

○ 이제 살펴 보건대, 신라가 주군(州郡)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현(縣)에 미달하는 곳은 향(鄉)을 두기도 하고 부곡(部曲)을 두기도 하여 소재 고을에 소속시켰다. 고려 때에는 또한 소(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사소(絲所)·주소(紬所)·지소(紙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鹽所)·묵소(墨所)·곽소(藿所)·자기소(瓷器所)·어량소(魚梁所)·강소(薑所) 등의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 또한 처(處)와 장(莊)으로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각 궁전과 사원 및 내장택(內莊宅)에 나뉘어 소속하여 그 세를 바쳤다. 위의 제소(諸所)에는 모두 토성이민(土姓吏民)이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 7, 경기도 여주목, 고적, 등신장)

경지면적과 인구가 적어서 군현으로 편제할 수 없는 곳을 향이나 부곡으로 편제했다는 기록을 사실로 볼 경우, 이는 부곡제 지역의 발생 배경에 지역 간 발전의 격차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6세기 이래 인구의 이동과 개간을 통해 신생 촌락이 형성되었고, 신라통일기에 와서 이들 군이나 현이 될 수 없는 영세한 규모의 촌락을 군현의 하부 행정단위로 편입시킨 것이 향과 부곡이었다는 것이다. 신생 촌락의 형성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지역간 발전 격차 또한 상당했으며, 그것이 고려시대에도 부곡제 영역이 발생, 유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고려시대 향 소 부곡은 당시 지역간 발전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편성된 일종의 사회적인 분업체제의 일종이었다.⁵⁾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부곡제 영역의 발생 추이에 비추어볼 때,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에 향·소·부곡이 많이 편제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소가야 지역이며 포상 팔국의 하나였던 고사포국(古史浦國)이 신라에 정복되는 과정에서 향, 부곡

4) 부곡제 영역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서울대출판부, 1991.

이흥두, 『한국중세 부곡연구』, 해안, 2006.

이정신,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소연구』, 해안, 2013.

5) 박종기, 「조선초기의 부곡」, 『국사관논총』 92, 2002.

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신라가 소가야를 취하여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로부터 정복되는 과정에서 고성 지역에서는 이에 저항했던 지역이 발생했을 것이고, 신라 정부는 이에 대해 고자군 예하의 향이나 부곡으로 편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 지역 부곡제 영역 발생의 또다른 배경은 신생 촌락의 지속적 출현일 것이다. 소가야 지역이 신라에 정복된 이후 고려시기에 이르기까지 고성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생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고성 지역은 연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산과 내가 많은 지역이다.

<고성의 산천표>

산천	동	서	남	북	비고
무량산(無量山)		10리			
미륵산(彌勒山)			67리		
우산(牛山)			30리		
좌이산(佐耳山)		서남쪽 30리			
남산(南山)			2리		옛 성터
불암산(佛巖山)		2리			옛 토성터
성산(城山)				24리	옛 성터
벽산(碧山)	15리				기우소
무기산(舞妓山)				2리	
용수암(龍水巖)				20리	깊은샘, 기우소
거류산(巨留山)	10리				
성현(城峴)		60리			옛 성터
천왕점(天王岾)				15리	
종송산(宗送山)		20리			
감치산(甘峙)	동남20리				
괘방산(掛榜)			20리		
와룡산(臥龍)		60리			
유민산(流民山)	15리				
문수산(文殊)		25리			
곡산(曲山)	20리				
무이산(武夷)		25리			
대치산(大峙)			20리		
적석산(積石)				40리	

곤계산(昆季)				40리	
작약산(芍藥)				40리	
혼돈산(混沌)		30리			
오도산(吾道)				40리	
필두봉(筆頭)				40리	
포도산(葡萄)	30리				
중실봉(中室)				40리	
옥녀봉(玉女)				40리	
월계봉(月桂)				40리	
금봉산(金鳳)				30리	
당산(堂山)				40리	
불암천(佛巖)		2리			
장대천(長大)	10리				
갈천(葛川)		30리			
신천(新川)				30리	

고성 소재의 산, 봉(峰), 현(峴)은 사방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쪽과 북쪽에 밀집되어 있다. 고성지역의 촌락은 이들 산천으로 경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생촌들이 형성될 때 특정 산을 중심으로 개간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이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고성 지역의 산자락을 터전으로 신생 촌락이 형성되고 이들이 산천에 의해 구분되어 고성현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정부는 이곳을 부곡제 영역으로 설정하여 고성에 소속시킨 것이라 하겠다. 전국 부곡제 지역의 입지 조건으로서 배산임수(背山臨水), 즉 산을 등지고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고성 지역 향, 소, 부곡의 입지에서도 확인되는 점이다.

고성 지역 부곡제 영역의 위치에 대해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향과 부곡의 경우는 읍치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리(里) 수로 표시하고 있다. 우선 동쪽으로는 발산부곡(1리), 도선부곡(20리), 적진향(20리), 구허부곡(30리), 죽림부곡(40리)이 차례로 자리잡고 있었다. 동남쪽으로는 진여부곡(25리), 해빈부곡(67)이, 동북쪽으로는 오늘날 동해면 일대에 곡산향(20리)이 있었다. 서쪽으로는 박달부곡(20리), 어례향(30리), 보령향(40리), 궤촌부곡(50리)이 차례로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곤의부곡(15리), 활촌부곡(20리), 녹명향(30리), 의선향(40리)이 부곡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호구총수』, 『여지도서』, 『대동지지』, 해동지도 등 조선후기 지도에서 고성현 소재 면의 위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1789)	『여지도서』	『대동지지』 및 해동지도	현재	
東邑內面	東邑內(15리)	東邑內	0-10리	고성읍
西邑內面	西邑內(15리)	西邑內	0-15리	
上里面	上西里面(30리)	上西面	15-40리	상리면
西里面				삼산면
下一運面	下里一運(37리)	下里一運	서25-45리	하일면
下二運面	下里二運(60리)	下里二運	서40-65리	하이면
大菴面	大菴面(30리)	대둔면	북15-30리	대가면
可洞面	可洞面(20리)	可洞面	북5-20리	
馬巖面	馬巖面(40리)	馬巖面	동북20-40리	마암면
九萬面	九萬面(40리)	九萬面	동북35-45리	구만면
會賢面	會賢面(50리)	會賢面	동북30-42리	회화면
光一面	光內一運(20리)	光內一運	동5-15리	동해면
光二運面	光內二運(60리)	光內二運	동15-50리	거류면
道善面	道善面(40리)	道先面	남15-30리	통영 도산면
春元面	春元面(70리)	春元面	남30-70리	통영시 일원

발산부곡의 위치를 읍치(邑治) 동쪽 1리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誤記)로 보인다. 읍치와 거리가 1리였다는 점이 의문이거나 1789년 통계 『호구총수』의 고성현 면리를 참고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호구총수』의 고성현 15개 면 가운데 마암면에 20개의 리가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발산리(鉢山里)’는 발산부곡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말선초 부곡이 소멸하는 가운데 면리제(面里制)가 시행되면서 발산부곡은 발산리로 개편된 것이다. 마암면의 위치는 조선후기 해동지도 등 지도의 주기를 참고하면 읍치로부터 20리에서 40리까지 걸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산부곡(발산리)은 읍치로부터 최소 20리 거리에 해당할 것이다.

박달부곡의 위치도 문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현 서쪽 20리에 있다’ 고 했으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찬가지로 『호구총수』 고성현 대둔면(大菴面)에는 9개의 소속 리 가운데 ‘박달리(博達里)’가 있는데 이곳이 박달부곡이 자리잡았던 곳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해동지도 주기에서 대둔면은 읍치에서 북쪽으로 15-30리 사이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박달부곡을 서쪽으로 표시한 것은 북쪽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도선부곡과 구허부곡은 모두 『호구총수』 도선면 소속 리인 도선리와 구허리가 이곳이며, 도선면은 조선후기 지도에서 읍치로부터 동남쪽 15-30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늘날 통영

시 도선면 일대이다.

곡산향, 어례향, 녹명향, 죽림부곡 등도 그 관련 지명이 『호구총수』나 조선후기 지도에서 확인된다. 녹명향은 회현면에서 녹명리로, 곡산향은 광이운면에서 내곡산리, 외곡산리로, 죽림부곡은 춘원면의 죽림리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녹명향은 현재 회화면의 녹명리이며, 곡산향은 현재 동해면 일대이고, 죽림부곡은 현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대이다. 어례향은 조선후기 지도 여지도에서 하일운면에 소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오늘날 하일면 일대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곤의부곡, 활촌부곡, 쾌촌부곡, 진여부곡, 적진향, 보령향, 의선향의 관련 면리명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비정하기 어려운데, 그 위치와 연관시켜 추정해볼 수 밖에 없다.

우선 동쪽과 동남쪽에 자리잡았던 적진향, 진여부곡, 해빈부곡을 보기로 하자. 적진향은 동쪽 20리 지점에 위치했다. 광내이운면이 동쪽으로 15-50리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적진향의 위치였을 것이고, 오늘날 거류면 일대가 될 것이다. 진여부곡은 동남쪽 25리, 해빈부곡은 67리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진여부곡이 동쪽으로 치우쳤다면 광내이운면과, 남쪽이라면 도선면과 더 가까울 것이다. 도선면은 구허부곡, 죽림부곡이 자리잡았던 곳임을 감안하면 광내이운면 쪽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볼 때 진여부곡은 오늘날 거류면 일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빈부곡은 남쪽으로 30-70리에 걸쳐 있었던 춘원면 지역이며, 이 곳은 뒤에 통제영이 설치되는 곳으로, 오늘날 통영시 용남면, 산양읍, 그리고 도천동 등 중심지가 이곳에 해당한다.

보령향과 쾌촌부곡은 서쪽으로 각각 40리, 50리 지점에 위치하였다. 이 지점과 연관되는 면으로는 서쪽으로 15-40리에 걸쳐 있던 상서면(현재 상리면), 25-45리의 하리일운면(하일면), 40-65리의 하리이운면(하이면)이다. 거리를 감안할 때 보령향은 오늘날 상리면과 하일면 일대에 위치하고 쾌촌부곡은 하리이운면 즉 오늘날 하이면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곤의부곡, 활촌부곡, 의선향은 북쪽으로 각각 15리, 20리, 40리 지점에 위치했다. 이 지점과 연관되는 면은 북쪽의 대둔면(15-30리), 동북쪽의 마암면(20-40리), 구만면(35-45리), 회현면(30-42리) 등이다. 위치로 보아 곤의부곡과 활촌부곡은 대둔면, 마암면에, 의선향은 구만면과 회현면에 가깝다. 의선향은 그 거리와 방향을 감안할 때 구만면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둔면 지역에는 박달부곡이, 회현면 지역에는 녹명향이 자리잡았던 것을 고려하면, 곤의부곡과 활촌부곡은 마암면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암면은 읍치로부터 20리에서 40리까지 걸쳐 있을 정도로 면적이 넓었고, 『호구총수』에 따르면 20개의 소속 리를 가지고 있던 규모가 큰 면이었다는 점에서 곤의부곡과 활촌부곡이 함께 자

리잡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경상도지리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성현의 동소 3곳, 은소와 다소 각각 1곳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삼산면 병산리 일대에 광산이 있어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연관해서 보면 은소와 동소 4곳은 이 지역에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시대 고성현 소속 부곡제 영역의 내용과 그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려시대 고성현의 부곡제 영역>

부곡제 영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위치	현재
곤의부곡(坤義部曲)	북쪽 15리	마암면
해빈부곡(海濱部曲)	동남쪽 67리	동해면, 통영시
도선부곡(道善部曲)	동쪽 20리	통영시 도산면(도선면)
진여부곡(珍餘部曲)	동남쪽 25리	거류면
구허부곡(丘墟部曲)	동쪽 30리	통영시 광도면(도선면)
죽림부곡(竹林部曲)	동쪽 40리	통영시 광도면(춘원면)
박달부곡(博達部曲)	서쪽 20리(?)	삼산면 대가면(대둔면)
활촌부곡(活村部曲)	북쪽 20리	마암면 일대
괘촌부곡(跪村部曲)	서쪽 50리	하이면
발산부곡(鉢山部曲)	동쪽 1리(동북쪽 20리?)	마암면 일부(마암)
곡산향(曲山鄉)	동북쪽 20리	동해면(광이운)
녹명향(鹿鳴鄉)	북쪽 30리	회화면(회현면)
어례향(魚禮鄉)	서쪽 30리	삼산면, 하일면
보령향(保寧鄉)	서쪽 40리	상리면, 하일면, 하이면
적진향(積珍鄉)	동쪽 20리	거류면
의선향(義善鄉)	북쪽 40리	구만면
압점은소(鵬岾銀所)		삼산면 일대?
석지동소(石智銅所)		
유식동소(遊息銅所)		
우차포동소(亏次浦銅所)		
달점다소(達岾茶所)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에서 부곡제 영역은 읍치로부터 동서쪽으로는 20리, 북쪽으로는 15리 밖에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곡제 영역을 제외한 고성현의 영역은 동

서 40리, 남북 15리 정도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부곡제 영역을 포함한 고려시대 고성현의 영역을 동서 130여리, 남북 45리로 보았을 때, 전체의 2/3 정도가 부곡제 영역이 분포한 지역이었다.

고성의 부곡제 영역의 규모가 어떠한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규모가 일정치 않았을 것이지만 동쪽으로(동남쪽 포함) 도선부곡 등 5개 부곡제 영역이 50리 거리 내에 차례로 분포했음을 고려하면 하나의 부곡은 10리 정도 될 것이며, 서쪽으로 어례향 등 4개 영역이 45리 영역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11리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하나의 부곡은 10리 정도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곡제는 향·소·부곡·장·처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과 부곡은 이미 신라때 형성되었던 것이 고려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되었고, 소는 고려에 들어와서 수취체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였다. 부곡제 지역 주민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조·포·역의 3세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군현제 주민과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향·부곡민은 이들과 달리 추가로 둔전·공해전 등 국가직속지를 경작하는 특정의 역을 부담했다. 소의 주민은 금·은 등의 광산물, 미역·소금 등의 해산물, 떡·자기·종이 등의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역을 추가로 부담했다. 한편, 장과 처의 주민은 궁원과 사원의 토지를 경작했으며, 그곳의 조세를 부담했다. 이와 같이 이들 주민은 특정의 역을 추가로 부담했기 때문에 군현민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향·소·부곡은 외관(外官)이 상주하여 군현의 행정을 전담한 주읍에 행정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향·소·부곡 지역에 대한 수취는 수령이 파견된 주읍 외관의 지시를 받는 향리층에 의해 이루어졌다. 속현과 함께 향·소·부곡 지역은 이들의 집중적인 수탈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 향·소·부곡은 12세기 초 이후 주민이 대거 도망하면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2세기 후반 대규모 농민 항쟁은 향·소·부곡 집단이 해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고려는 원(元)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14세기 이후 일련의 군현 개편을 통해 향·소·부곡을 주현으로 승격시키거나 주민을 군현에 예속시켜 그곳의 직할현으로 편성하는 등 부곡제를 해체시키고 군현의 단일 영역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 초기 군현 개편에도 그대로 이어져 16세기 이후 향·소·부곡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한편 고려시대 고성현에는 군현의 입지 조건에 따라 섬[海島]과 곳(串)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고성현의 섬에 대해서는 조선중기 지리서인 『경상도속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되는데, 그 숫자는 56개나 된다. 이들 지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섬과 곳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다음표로 소개해 둔다.

<고성의 도서(島嶼)>

	섬이름	거 리		둘레	비 고
		육로	수로		
1	말을상곶(末乙上串)	30리		130리	목장
2	주악곶(住岳串)	50리			
3	해평곶(海平串)	40리		140리	목장
4	내초(內草)도	5리	10리	5리	
5	갈(葛)도	5리	4리	8리	
6	송(松)도	5리	5리	43리	
7	비산(非山)도	8리	3리	3리	
8	가배(加背)도	14리	1리	1리 30보	
9	두(荳)島	29리	2리	2리	
10	적화(赤火)도	35리	5리	3리.	전1결2부2속
11	내저지(內楮只)도	35리	8리	2리 20보	
12	자란(自卵)도	33리	2리	12리.	전2결56부6속, 답10부8속, 왜저전40부1속, 민가 3
13	소저지(小楮只)도	35리	9리		
14	외송(外松)도	50리	2리	2리	
15	안(鞍)島				
16	하박(下撲)도	50리	35리	50리	
17	상박(上撲)도	50리	30리	24리	전63부3속, 답31부5속
18	날음단(捺音丹)도	39리	1리	1리	
19	외비산(外非山)도	40리	1리	2리	
20	장고(長鼓)도	40리	3리	2리	
21	부지(夫知)도	40리	5리	1리	
22	마(馬)도	40리	4리	1리 30보	
23	미지(尾只)도	72리	11리	5리	
24	오비(吾非)도	73리	9리	3리	
25	대곤(大昆)도	72리	2리	7리	
26	소곤하(小昆何)도	72리	2리	1리	
27	발이(鉢伊)도	72리	5리	1리	
28	국정(國正)도	72리	4리	1리 50보	
29	어리(於里)島	83리	2리	10리	
30	외초(外草)도	83리	2리	3리	
31	만지(萬知)도	83리	7리	8리 15보	
32	연대(煙臺)도	83리	7리	12리	
33	오사(吾土)도	83리	8리	10리	
34	추라(楸羅)도	72리	30리	10리	
35	신비(申非)도	72리	102리	3리	
36	대노태(大老太)도	72리	178리	5리	

37	노태(老太)도	72리	178리		
38	둔밀(菴密)도	72리	168리	8리	
39	욕지(欲知)도	72리	198리	65리	
40	갈이(葛伊)도	72리	198리	6리	
41	내초이(內草伊)도	72리	198리	7리	
42	외초이(外草伊)도	72리	198리	5리	
43	마홀(磨訖)도	72리	198리	2리	
44	연화(蓮花)도	72리	198리	53리	
45	적로(赤老)도	72리	198리	9리	
46	임(林)島	72리	198리	4리	
47	송(松)도	31리	21리	4리	
48	병비(並非)도	31리	19리	2리	
49	수(水)도	20리	20리	1리	
50	입(笠)도	20리	20리	3리	
51	종해(終海)도	51리	4리	21리,	전3결6부1속, 답54부4속, 민가3
52	시락(時落)도	31리	1리	11리	
53	어응적(於應赤)도	20리	20리	15리	
54	장좌(長佐)도	42리	8리	200보	
55	공수(公須)도	40리	1리	1리	
56	죽(竹)도	32리	1리	3리	전 14부 8속

2. 고성의 촌락

고려시대 촌락은 리(里)·촌(村)·동(洞)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 분포하여 향촌사회의 기초로 자리잡았다. 민의 구체적 생활공간인 촌락의 형성과 소멸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시대 촌락은 신라통일기의 그것을 바탕으로 나말여초 사회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자연환경이라는 지리적 입지 조건과 고려시대 토지 소유관계, 군현제와 부곡제 영역으로 계서화한 광역형 지방지배 방식 등이 고려시대 촌락의 존재 형태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일 것이다.

고려시대 국가는 지배의 편의를 위해서 촌락민의 생활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연촌(自然村)을 서너 개 묶어서 지역촌(地域村)으로 편제하여 부세 수취를 비롯한 촌락 행정의 기초 단위로 삼고 있었다.⁶⁾ 촌락 행정의 기초 단위가 되는 촌락을 행정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촌락 행정은 촌주(村主), 촌장(村長), 촌전(村典), 이정(里正) 등으로 불리는 계층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군현의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향리(鄕吏)의 지휘를 받았다. 면리제로 전환하면서 지역촌은 면, 자연촌은 리로 편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고려

6) 구산우, 「중세의 지역촌과 자연촌」, 『역사비평』 28, 1995.

시대에도 면리제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⁷⁾

고려시대 고성현의 하부 행정단위로서 촌락이 어떻게 편제되었고,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촌락이 기초 단위였음에 틀림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면리 자료를 활용하여 그 모습을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고성 지역사회도 촌락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단편적 사례이기는 하나, 다음의 보고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 원종(元宗) 2년 정월에 범[虎]이 고성현의 석천사동(石泉寺洞)에 모여 북을 치며 춤을 추었다.(『고려사』 권 54, 지 8, 오행 2, 금)

위 기록은 고려시대 궁궐이나 도성, 관청, 특정 고을에 범, 여우, 사슴 등 동물이 나타나 괴이한 행동을 보인 사례들을 소개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원종 2년(1261) 정월에 범이 고성현에 모여들었는데, 그 장소를 ‘석천사동’으로 소개한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석천사동이라는 것을 ‘석천사가 있는 마을’ 정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고성현에 있었던 촌락의 명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민왕 22년(1373) 6월 왕륜사(王輪寺) 영전(影殿)에 행차한 후 안화사동(安和寺洞)에서 잔치를 열었다는 기사나⁸⁾, 효자 문충(文忠)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관산 영통사동(靈通寺洞)에서 살았고⁹⁾, 묘련사(妙蓮寺)가 있는 동네를 묘련동이라 불렀다는¹⁰⁾ 사실을 통해 사찰이름을 동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성의 석천사동은 절 마을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행정단위로서의 동(洞)을 지칭한 것이다.

고려시대 고을의 하부 행정단위로서 ‘동’은 ‘방(坊)’, ‘리(里)’와 함께 주로 수도인 개경의 행정 구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 군현의 하부 행정단위도 일반적인 칭호인 ‘촌(村)’과 함께 ‘동’, ‘리’로도 부르고 있었다. 고종 23년(1236) 12월 몽골군 침입때, 야별초 박인결(朴仁傑) 등이 공주(公州) ‘효가동(孝加洞)’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한 데서¹¹⁾, 「홍규묘지명」에서 충선왕의 비부(妃父)인 남양부원군 홍규(洪奎)가 사망했을 때 덕수현(德水縣)의 ‘저룡동(猪籠洞)’에 장사지냈다는 사실, 「이조년묘지명」에서 충혜왕때 활동했던 이조년(李兆年)의 묘가 그의 본관지인 경산부(京山府) ‘부동(釜洞)’에 있다고 한 데서, 지방 군현에서도 ‘동’을 행정 단위명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7) 구산우, 「고려시기 면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8) 『고려사』 권 44, 세가, 공민왕 23년 6월 기미.

9) 『고려사』 권 121, 열전 34, 효우, 문충전.

10) 『고려사』 권 131, 열전 44, 반역, 김용(金鏞)전.

11) 『고려사』 권 23, 세가, 고종 23년 12월 무자.

있다.

군현에서 ‘리’를 행정 단위로 삼았던 사례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제현이 쓴 「이조년묘지명」에서 이조년을 경산부 ‘용산리(龍山里)’ 출신이라 하였고, 「예산효교리매향비(禮山孝橋里埋香碑)」에서는 예산 ‘용오리(龍吾里)’ 들머리[埜頭]에 매향했다고 하였다. 신종 2년(1199)에 세운 「발연수진표율사장골비(鉢淵藏眞表律師藏骨碑)」에서 “진표율사는 본래 전주(全州) 벽골군(碧骨郡) 도나산촌(都那山村) 대정리(大井里)에서 출생하였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벽골군 즉 고려시대 김제현(金堤縣)에는 ‘대정리’가 있었고 ‘도나산촌’이 있었다. 특히 대정리가 도나산촌 관할의 리처럼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도나산촌이 마치 대리(大里) 혹은 면(面)이고 대정리가 소리(小里)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 면리제와 같은 통속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고성현에서 ‘석천사동’이라는 행정 단위로서 흔적이 유일하게 확인된다. 석천사동이 어느 곳인지, 고성지역에 석천사라는 절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佛宇)조에 수록된 사찰 가운데 석천사는 경기도 여주목, 경상도 선산도호부와 영산현, 충청도 신창현, 전라도 금산군(錦山郡)과 능성현(綾城縣), 황해도 재령군(載寧郡), 강원도 횡성현(橫城縣), 평안도 안주목(安州牧) 등에서 확인되는데, 정작 고성 지역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다. 고려시대까지 존재했던 것이 이후 어느 시기에 쇠락하여 폐사(廢寺)로 되었거나, 사찰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모른다.

고성 소재의 사찰은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1469)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고성의 유일한 사찰로 교종 소속의 법천사(法泉寺)를 소개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는 고성 소재 사찰을 전혀 기록하지 않다가, 1750년대 이전 제작으로 알려져 있는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주기에서 고성의 불우(佛宇)로 법천사와 함께, 와룡사(臥龍寺), 내원사(內院寺), 안정사(安井寺), 미륵사(彌勒寺) 등 5개 사찰을 묘사하고 있다. 『여지도서』(1757-1765)와 『고성현읍지』(1785)에서는 법천사(法泉寺; 무량산), 운흥사(雲興寺; 와룡산), 내원사(內院寺; 와룡산), 안정사(安靜寺; 벽방산) 등 4개의 사찰을, 『고성군읍지』(1899)에서는 여기에다 문수사(文殊寺; 현 서쪽), 장의암(藏義菴; 현 동쪽), 용화사(龍華寺; 현 서쪽) 3개 사찰이 추가되었다.

이른 시기부터 고성의 사찰로 소개되어온 법천사의 유래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태종 7년(1407) 전국의 명찰을 골라 자복사(資福寺)로 지정하면서 고성의 법천사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¹²⁾ 꽤 오래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법천사는 중도종(中道宗)과 신인종(神印宗)을 합친 중신종(中神宗) 소속 사찰로 분류하였는데, 이로 보

12)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12월 2일 신사.

아 밀교 계통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초 법천사의 위상을 고려할 때, 고려 원종대까지 고성의 사찰로 알려져 있던 석천사가 바로 이 사찰이 가능성이 높다. 즉 사명을 석천사로 하다가 고려 원종대 이후 어느 시기에 법천사로 개칭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원종 2년 정월에 범이 모여들었다고 한 ‘석천사동’은 ‘법천사동’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법천사가 무량산에 있었고, 무량산은 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는 고성의 진산(鎭山)이었다는 점에서 석천사동은 무량산을 등지고 석천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촌락들을 고려시대에 동(洞)으로 불렀던 것이다.

『고려사』 등 고려시대 관련 자료에서 ‘석천사동’ 이외 고성의 관할 행정 단위로서 촌락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왜구가 침입한 곳으로 충렬왕 6년의 칠포(漆浦)와 우왕 4년의 적전포(赤田浦)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조선초기 지리서를 통해서 당시 고성의 면리(面里)제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 촌락의 존재를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도지리지』(1425) 단계 면리 현황을 추정해낼 수 있다면, 이를 고려시대 군현의 하부 행정단위로서 촌락의 존재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면리제 하에서 그 체계는 면-리체계가 일반적이었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의 설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가장 빠른 읍지인 『함주지(咸州誌)』(1587)는 함안의 면리를 리(里)-방(坊)체계로 편성하여 17개의 리와 146개의 방을 소개했으며, 진주 읍지인 『진양지(晉陽誌)』(1625)는 면-리-방체계로 편제하여 5개의 방위면에다, 104개의 리, 그리고 460여개에 달하는 소속 방을 소개하였다. 신익전(申翊全; 1625~1660)이 효종 3년(1652)년 밀양부사로 재직하면서 찬술한 『밀양지(密陽志)』(1652)는 밀양의 면리를 대리(大里)-소리(小里)체계로 편성하여 대리 11, 소리 163의 편제를 보이고 있다.¹³⁾

<면리 명칭 비교표>

『함주지』(1587)		『진양지』(1625)			『밀양지』(1652)	
리(里)	방(坊)	면(面)	리(里)	방(坊)	대리(大里)	소리(小里)
상리(上里)	8	읍내면(邑內面)	13		부내리(府內里)	7
하리(下里)	13	동면(東面)	23	107	부북리(府北里)	13
병곡리(竝谷里)	7	남면(南面)	25	111	상동리(上東里)	8
비리곡리(比吏谷里)	9	서면(西面)	31	167	중동리(中東里)	33

13) 김광철,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밀양 지역사회」, 『석당논총』 39, 2007.

대곡리(大谷里)	14	북면(北面)	12	85	하동리(下東里)	8
평광리(平廣里)	5				부남리(府南里)	22
산족리(山足里)	9				상서리(上西里)	19
죽산리(竹山里)	4				하서리(下西里)	17
안도리(安道里)	10				각남리(角南里)	15
남산리(南山里)	8				각북리(角北里)	14
우곡리(牛谷里)	7				고미리(古彌里)	7
백사리(白沙里)	7					
마륵리(馬輪里)	8					
대산리(大山里)	7					
대산리(代山里)	16					
안인리(安仁里)	7					
산익리(山翼里)	7					
17	146	5	104	470	11	163

이처럼 조선초 면리제 하에서 면은 반드시 면으로 명명하지 않고 리 또는 대리라 부르기도 하였다. 리 소속의 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서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 보이는 당시 고성현 소속의 몇몇 리(里)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보이는 고성현의 리>

항목	면 리
제언(堤堰)	현동리(縣東里) 부제(浮堤), 울천리(栗川里) 우산제(牛山堤), 마암리(馬岩里) 초모곡제(草毛谷堤), 구내리(仇內里) 장현재(槁峴堤)
염분(鹽盆)	산북리(山北里) 자화포(資火浦)·소소포(召所浦)·당항포(堂項浦), 진포리(田浦里) 가화포(加火浦), 울천리(栗川里) 소소포(召所浦), 춘원리(春元里) 황이천포(橫耳川浦)·춘원포(春元浦)·구허포(丘墟浦)·장평포(長平浦), 현서서리(縣西西里) 어례향포(魚禮鄉浦)·쌍봉포(雙峯浦), 하리(下里) 수대포(水大浦)·소을비포(所乙非浦)·지포(池浦)
목장(牧場)	광내리(光內里) 말을상곶(末乙上串), 춘원리 해평곶(海平串)
어량(魚梁)	춘원리(春元里) : 종해도(終海島)·수월포(愁月浦)·양지포(陽知浦)
관방(關防)	당포(唐浦) : 춘원리(春原里), 사랑(蛇梁) : 하리(下里)
원우(院宇)	현동리(縣東里) 도선원(道善院), 마암리(馬岩里) 성산원(城山院)
참역(站驛)	송도역(松都驛), 배둔역(背屯驛), 구허역(丘墟驛)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 고성 소속의 리(里)로 현동리(縣東里), 울천리(栗川里), 마암리(馬岩里), 구내리(仇內里), 산북리(山北里), 전포리(田浦里), 춘원리(春元里), 서리(西里), 하리(下里), 광내리(光內里) 등 10개의 리를 확인하였다. 이들 리를 통해 당시 고성에도 면리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리들은 면에 해당하는 대리(大里)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마암리, 서리, 하리, 춘원리, 광내리의 호칭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들 리들은 『호구총수』(1789) 단계에서는 마암면, 서리면, 하일·이운면, 춘원면, 광일·이운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내리도 구만면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산북리나 전포리는 『호구총수』에서 각각 회현면과 마암면 소속의 리로 나오고 있지만, 이는 뒤에 소리로 변화한 것이고 『경상도속찬지리지』 단계에서는 대리로 기능했다고 본다. 면리제 하에서도 고성은 함안이나 밀양 지역과 마찬가지로 면으로 지칭하지 않고 면을 리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고성의 리들은 대리로서 면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그 관할의 리, 즉 소리(小里)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소리에 대해서 조선전기 지리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고성의 리를 소개하고 있는 가장 빠른 기록인 『호구총수』의 내용을 활용하기로 하자. 『호구총수』 소재 고성현의 면리와 호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고성의 면리>

면	리	
	리명	리수
東邑內面	上東門內里, 下東門內里, 東門外里, 東北洞, 南門內里, 南門外里, 水門外里, 南山下里, 邑前浦里, 舊船倉里, 阿次浦里, 巨云之里, 栗垈里, 松道里, 新化洞里, 召所里, 東邑內邑前浦里	17
西邑內面	特谷里, 牛山里, 新城里, 陽德里, 武良里, 桂洞里, 新基里, 舞鶴亭里, 藥村坊里, 西門內里, 常坪里, 松樹洞, 鄉校洞, 堂洞里, 中島里, 板云之里, 巖浦里, 梨洞, 西邑內, 西門內里	20
上里面	古谷里, 北古谷, 東山里, 滌頓亭里, 烏山里, 佳洞里, 武夷山, 望林里, 龜尾洞, 夫浦里, 旆良里, 自隱橋	12
西里面	禾里峙, 長朴只里, 三峰浦里, 松令浦里, 豆毛峙	5
下一運面	樹多里, 加龍浦, 古延里, 松川里, 舊所非浦, 梧耳芳, 蛇梁東邊里, 內池浦里, 西邊里, 公須里, 頓之浦里, 下一運, 蛇梁西邊	13
下二運面	檻古介里, 臥龍洞, 石之里, 新德里, 君之浦, 並未浦, 毛羅谷里, 薪田里, 德面里, 月牙谷	10
大菴面	禾巖里, 新基里, 朴達里, 尺谷里, 場田里, 沙鐵店里, 薪田里, 葛川里, 宋生里	9
可洞面	新基里, 柳月峙里, 新月里, 巖谷里, 麻田里, 細洞里, 新化洞里, 內可洞里	8
馬巖面	頭浦里, 頭樂亭里, 錢島里, 平山里, 田浦里, 明松亭里, 法水洞里, 禾東	20

	里, 禾西里, 船尾洞里, 道洞里, 龍田里, 柿洞里, 樟山里, 鉢山里, 聖田里, 杻峙里, 佐月谷里, 新里 漁隱洞里	
九萬面	興福洞, 龍臥洞, 沙器店, 苧洞里, 佳趣洞, 外院洞里, 內院堂里, 酒泉里, 掄臺里, 樂洞, 廣巖里	11
會賢面	漁鮮里, 山北里, 新復里, 東村里, 資所里, 藍津里, 新川里, 鹿鳴里, 軍陳里, 背屯里	10
光一面	佳里洞, 長大里, 松亭里, 九賢洞, 銀亭子, 黃里, 安靜里, 生水洞, 龍山里	9
光二運面	南村里, 堂洞里, 豆古里, 外曲山里, 內曲山里, 甘洞里, 葡萄島, 莊佐洞, 駕龍浦里, 旃丁浦里, 凡法堂里, 錢島里, 佐夫川里, 場基里, 葡萄	15
道善面	沙器幕洞, 坪里, 船倉里, 五合浦里, 豬頭浦里, 禾月里, 南浦里, 良之浦, 化主幕洞, 地法里, 丘墟里, 牛洞里, 倉浦里, 道善, 地法	15
春元面	竹林里, 忽里洞, 長坪浦, 小斤浦里, 紙島里, 遠浦里, 檢下浦里, 場門里, 轅門里, 左德浦里, 助羅浦里, 面梁里, 凡洞里, 項北里, 海松亭里, 松亭里, 東虛門里, 上東門內里, 下東門內里, 北門內, 新上里, 西部里, 西舊上里, 東舊上里, 倉洞里, 船倉洞, 東橋里, 明井洞, 西忠里, 東忠里, 西橋里, 道理洞, 泉洞里, 川洞里, 東堂峰里, 西堂峰里, 大谷里, 東海平里, 西松亭里, 道味里, 烽燧洞里, 三千鎮里, 際望浦里, 新村里, 沙田之里, 達牙里, 尺浦里, 烏島里, 烟臺島里, 連命浦里, 屯田里, 禿吾之里, 蟹島里, 唐浦里, 院項浦里, 冶所洞里, 昆里島	57
15		231

<『호구총수』 고성의 면별 인구>

면	리수	호수	인구		
			남	여	계
동읍내면(東邑內面)	17	635	1,298	1,428	2,726
서읍내면(西邑內面)	20	456	735	842	1,577
상리면(上里面)	12	184	341	376	717
서리면(西里面)	5	221	492	527	1,019
하일운면(下二運面)	13	622	1,272	1,345	2,617
하이운면(下二運面)	10	176	315	350	665
대둔면(大菴面)	9	97	214	225	439
가동면(可洞面)	8	165	441	472	913
마암면(馬巖面)	20	327	553	575	1,128
구만면(九萬面)	11	241	489	546	1,035
회현면(會賢面)	10	434	753	842	1,595
광일면(光一面)	9	372	711	743	1,454
광이운면(光二運面)	15	576	1,351	1,418	2,769
도선면(道善面)	15	451	1,054	1,128	2,182
춘원면(春元面)	57	4,740	10,146	10,841	20,987
합 계	231	9,697	20,165	21,658	41,823

『호구총수』(1789) 단계 고성의 면리는 15개 면에 231개 리로 편제되었다. 1750년대 제작으로 알려진 『해동지도』의 고성주기에서는 상리면과 서리면으로 분리되지 않고 ‘상서리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하일·이운면은 ‘하리일·이운면’으로, 광일면은 ‘광내일운’, 광이운면은 ‘광내이운’으로 그 호칭이 다르다. 『여지도서』(1757-1765)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리 표시를 관문으로부터 거리만 표기하였다. 1785년 편찬의 『고성현지』에서 상서리면이 ‘상리면’으로 개칭되었을 뿐 『해동지도』 이래 14개 면과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호구총수』 단계에서는 상서리면(상리면)이 ‘상리면’과 ‘서리면’으로 분리되어 15개 면 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호구총수』 단계의 고성 15면 체계는 이후 1866년 경 편찬된 『대동지지』 단계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1899년 경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고성현읍지』에서는 광이운면이 ‘광이면’, ‘광삼면’, ‘포도면’ 3개의 면으로 분화되어 17면이 되었다. 이 때 면 명칭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서리면이 상남면으로, 하일·이운면이 하일·이면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철성지』(1930) 단계에서는 진주에서 이속된 영현·오읍·영이·개천면 등 4개면이 추가되었다. 이상 조선후기 고성현의 면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현의 면 명칭 변동>

『호구총수』(1789)	해동지도(1750년대)	『여지도서』(1765)	『고성현지』(1785)	『고성현읍지』(1877)	『철성지』(1930)	『교남지』(1940)	현재
東邑內面	동읍내 0-10리	동읍내 15리	동읍내	동읍내	동읍내	固城面	고성읍
西邑內面	서읍내 0-15리	서읍내 15리	서읍내	서읍내	서읍내		
上里面	上西里 15-40리	상서리 30리	上里面	上里面	상리면	상리면	상리면
西里面				上南面	상남면	三山面	삼산면
下一運面	下里一運 서25-45리	하리일운 37리	하리일운	下一面	하일면	하일면	하일면
下二運面	下里二運 서40-65리	하리이운 60리	하리이운	下二面	하이면	하이면	하이면
大菴面	대둔 북15-30리	대둔면 30리	대둔면	대둔면	대둔면	大可面	대가면
可洞面	가동 북5-20리	가동면 20리	可東面	可洞面	가동면		
馬巖面	마암 동북20-40리	마암면 40리	마암면	마암면	마암면	마암면	마암면
九萬面	구만 동북35-45리	구만면 40리	구만면	구만면	구만면	구만면	구만면
會賢面	회현 동북30-42리	회현면 50리	회현면	회현면	회현면	會華面	회화면
光一面	光內一運 동5-15리	광내일운 20리	광내일운	光一面	광일면	巨流面	거류면

光二運面	光内二運 동15-50리	광내이운 60리	광내이운	光二面	광이면	東海面	동해면
				光三面	광삼면	光道面	광도면
				葡萄面	포도면		
道善面	도선면 남15-30리	도선면 40리	도선면	도선면	도선면	道山面	도산면
春元面	춘원면 남30-70리	춘원면 70리	춘원면	춘원면	춘원면	統營邑	도천동
						龍南面	용남면
						山陽面	산양읍
					永縣面	永縣面	영현면
					吾邑面	永吾面	영오면
					永耳面		
					介川面	介川面	개천면

『호구총수』의 고성현 15개 면은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서 확인한 10개의 대리(大里)가 분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서읍내면이 추가되고, 하리가 하일운면과 하이운면으로 분화했으며, 광내리가 광일면과 광이운면으로 나누어진 결과이다. 조선초기 대리-소리체제로 운영되던 고성 지역사회는 대리가 분화하는 가운데 조선후기에는 면-리체제로 개편되고 그 소속의 리 수도 증가했다.

『호구총수』에 등재된 전국의 군현수는 332곳, 면수는 3,951곳, 리수는 39,465곳, 호수는 1,708,908호, 구수는 7,214,453명(남 3,511,198, 여 3,703,246)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군현당 면수는 11.8, 군현당 리수는 104.6, 면당 리수는 9.98, 면당 호수는 430.5, 면당 구수는 1,857.8, 리당 호수는 56.8, 리당 구수는 247.2로 계산된다.¹⁴⁾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당시 고성현의 면리수 15면 231리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고성의 면당 리수는 15.4, 면당 호수와 구수는 각각 646.5호와 2,788.4명, 리당 호수와 구수는 각각 42호와 181.1명으로 계산되는데, 면당 호구수는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나, 리당 호구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성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면수에 비해 리수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성현은 『호구총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생촌과 같은 새로운 리들이 꾸준히 만들어진 결과이고, 따라서 『호구총수』 단계 고성의 리수를 여말선초 시기의 그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국적으로 『호구총수』 단계에 와서 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

14) 서울대규장각, 『호구총수』, <표2> 『호구총수』에 기록된 18세기 후반 지방행정구역의 규모.

지도서』(1769)의 통계 이후 『호구총수』 통계까지 2,30년 사이에 리수 증가 양상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충청도 지역의 리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 리수 증가는 리의 분화와 신리(新里)의 출현에 따른 것이었다.¹⁵⁾ 반면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사이에 리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호구총수』 통계 이전에 읍지가 간행된 몇몇 지역의 예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1740년 간행의 『동래부읍지』에는 동래부의 면리를 10면 96리로 기록하고 있는데, 『호구총수』에서는 면 8, 리 104로 집계하고 있다. 면은 2개 줄어든 대신 리수는 8개 증가하고 있다. 이는 50년 정도 경과하는 사이에 호구가 2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볼 수 있다.

밀양의 리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1652년 밀양부사 신익성이 찬술한 『밀양지』(1652)의 면 리수는 면 11, 리 163이었다. 여기에는 속현인 수산현과 풍각현의 액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호구총수』 단계에서 풍각현은 대구로 이속한 뒤이지만 비교를 위해서는 이 수가 지 포함시키면 19개 면에 200개 리로 집계되어 면과 리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밀양지』에서는 전결수와 호구수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시기 호구수를 9,256호에 46,282구로 추정하는 바 있어¹⁶⁾, 『호구총수』 단계에서 밀양의 호구수도 30% 이상 증가한 셈이며, 이것이 면리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은 아니다. 면리제 운영과정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리의 규모를 크게 설정한 경우 오히려 리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함안, 진주, 안동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함안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리가 17면 146개 리에서 10면 99개 리로 줄어들었고, 진주는 면수는 동일하나 리수가 104개에서 72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안동의 경우 면은 16개에서 25개로 늘어났지만, 리수는 오히려 377개에서 266개로 100여 개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호구와 전결수가 증가하면 리수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나, 지역의 입지 조건에 따라 면리의 편제를 조정할 때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인구 비례만으로 『경상도지리지』 단계, 즉 조선초기 고성의 면리 수를 추정하는 데 제약 요소이며, 다른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인구비례만으로 조선초 고성현의 리수를 추산하면, 『호구총수』 단계에서 인구 41,823명일 때 231개 리로 편제되었으므로, 『경상도지리지』 단계 고성현 인구 5,718명과 대비하면 조선초의 리 수는 32개로 계산되는데,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조선 초기 고성현의 리수를 추산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고성 지역사회에 부곡제 영역이

15) 임학성, 「18세기 후반 동리의 증가와 신리의 생성」, 『호서사학』 49, 2008.

16) 김광철,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밀양 지역사회」, 『석당논총』 39, 2007.

넓게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부곡제 지역도 하나의 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촌락이 여럿 모인 곳도 있었지만, 해체되면서 직촌이 되었듯이 일반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촌락의 분화가 늦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곡제 지역에 설치된 면 가운데 지나치게 소속 리가 많은 곳은 그 배경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구총수』 고성의 면리를 통해 조선초의 면리와 고려시대 촌락 현황을 추정할 때, 가장 먼저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곳은 오늘날 통영시 지역인 춘원면이다. 고성 15개 면 가운데 하나인 춘원면은 리수 57개에 호가 4,740호, 인구 20,987명으로, 리수는 전체의 25%, 호구수는 전체의 50%나 된다. 『호구총수』의 전국 군현 통계에서 1개 면이 이같은 규모를 보인 곳은 춘원면이 유일하다.

고려시대 해빈부곡 등이 자리잡았던 춘원면에서 이처럼 리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이고 배경은 무엇일까? 춘원면의 존재는 이미 조선초에 ‘춘원리’로 지리서에 등장하고 있다. 포구가 발달하여 춘원포, 구허포, 장평포 등에 어장과 염분이 발달했고, 당포영이 소재하여 관방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른 시기부터 해빈부곡 지역이 춘원면으로서 면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소속 리도 상당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춘원면 소속의 리와 호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통제영의 설치와 연관이 있다.

선조 37년(1604) 두룡포(頭龍浦) 통제영이 확정된 이후, 숙종 4년(1678) 성곽이 완공될 때까지 통제영성 안팎에는 관아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 그리고 주거 공간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다.¹⁷⁾ 통제영의 설치에 고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통제영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둔전이 설치되면서 작업장의 기능도 하게 되어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통영 지역은 군수관련 공업과, 상업,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으로써 군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활동의 요지로도 부각되었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1872년 지방지도의 하나인 「통영지도」에서 통영성 안팎을 비롯해 경역 내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당시 춘원면에 자리잡은 통제영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제영 설치 이후 이같은 경제 발전과 인구집중에 따라, 춘원면 지역에서는 이들을 구획하는 기초 행정단위로서 리를 계속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호구총수』 단계에서 57개의 리가 소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춘원면의 57개의 리 가운데 대부분은 통영 설치

17) 통제영 설치 후 성곽과 각종 시설물, 도시 경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김상환, 「조선 후기 통제영의 건설과 도시경관의 변화」, 『대구사학』 105, 2011.

김현구, 「조선 후기 통제영의 공해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2012.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리들이며, 조선초기에는 생성되지 않았던 리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제영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춘원면의 리수도 인근의 광이운면이나 도선면 정도인 15개 리, 450여 호, 인구 2,000여 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춘원면의 규모를 이렇게 조정하면 『호구총수』 단계 고성현은 15개 면, 189개 리, 5,400여 호, 인구 23,000여 명 정도로 산정될 것이다. 면별 평균 리수 12.6개, 호수 360호, 인구 1,533명 정도이고, 리별 평균 호수 28.6호, 인구 121.7명 정도가 된다. 『호구총수』 단계 고성의 리는 인구 12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호구총수』 단계 면리의 규모를 조선초의 그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초에도 189개의 리가 있었다면 리당 인구수가 30명 정도로 리 구성 인구면에서 문제가 있다. 조선초 고성에 이 정도 액수의 리가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 수에 있어서는 조선초에 15개가 아니라 13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일운면과 하이운면은 하리에서 분화한 것이고, 광일면과, 광이운면은 광내리에서 분화한 것이다.

리의 분포는 경지면적의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생업인구를 전적으로 농업인구로 설정할 수 있다면, 전결 수 대비로 리수를 추산할 수도 있겠다. 『호구총수』 통계 당시와 가까운 시기인 1785년에 편찬한 『고성현읍지』에서 고성의 전결수를 한전 2,966결, 수전 3,339결 모두 6,305결로 기록하고 있다. 호구수는 호 9,694, 구 41,770(남 20,620, 여 21,150)이다. 전답 6,305결일 때 조정된 리수 190여 개 리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세종실록지리지』 고성의 전결수 3,941결이었을 때 리 수는 119개로 계산된다. 이 정도는 현실성 있는 액수로 보인다. 조선초 고성 인구가 『경상도지리지』에서 5,718명으로 소개하고 있어, 리 당 평균 48명 정도로, 리를 유지할 수 있을만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초 고성현에는 13개의 대리(면)와 120개 정도의 소리가 자리잡았다. 이를 고려시대의 촌락으로 추정한다면, 고성 지역사회에는 13개 정도의 지역촌과 120개 정도의 자연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제 3절 고려시대 고성의 지방 행정

1. 고성현의 치소(治所)와 치소성

치소(治所) 혹은 읍치(邑治)는 군현 행정의 중심지로서, 수령의 거소(居所)일 뿐 아니라 관아시설과 재지세력의 읍사(邑司)가 자리잡고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으며, 지방행정의 기반시설인 시장과 객사, 누정, 도로망이 구축된 곳이다. 고려시대 군현 치소는 조선시대의

치소가 평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낮으막한 산에 자리잡고 있었다.

고려시대 고성의 치소가 조선시대 읍치인 읍성이 설치된 곳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확실치 않다. 조선시대 읍성 지역의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고려의 치소성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초 지리서에서 확인되는 고성지역 읍성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지리지』 (1425)	『세종실록지리지』 (1454)	『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읍성(邑城) : 둘레 285보 4척, 넓이 5결17부, 우물 4.	읍성(邑城) : 석성, 둘레 285보, 우물 4.	읍성(邑城) : 무진년 석축. 둘레 4,069척 2촌, 높이 15척, 우물과 못 4, 군창 1.	읍성(邑城) : 둘레 3,524척, 높이 15척, 우물 4, 못 1.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의 읍성은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가 조금 상세한 편이다. 읍성의 둘레는 285보 4척, 넓이 5결 17부에 우물이 넷 있었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읍성의 높이는 전하지 않고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는 읍성에 대해 무진년, 즉 세종 30년(1446)에 석축한 것이라고 하였다. 『경상도지리지』에 소개된 읍성과는 다른 곳에 새로 쌓은 것이거나, 아니면 기존 읍성을 증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의 읍성도 석축이었다는 점에서 후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종 1년(1451) 9월, 경상·전라·충청도 도체찰사 정분(鄭笨)은 고성의 또 다른 읍성을 알려주고 있다. 정분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성곽을 조사한 후 왕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각 지의 성곽을 1)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2) 급히 개축(改築)해야 할 것, 3) 추후에 축조할 수 있는 것, 4) 물려서 쌓아야 할 것 등 넷으로 구분하였는데, 고성읍성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그 규모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 정분(鄭笨)이 아뢰기를, “경상도·충청도 각 고을의 성자(城子)는 당초에 법식(法式)에 따라 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규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대로 둘 수 있는 고을과 기한 내에 급히 개축해야 할 고을, 추후에 축조할 수 있는 고을, 그리고 물려서 쌓아야 할 고을들을 마감하여 삼가 갖추어 아뢰옵니다.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성현 읍성(固城縣邑城)은 둘레가 3천 11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牆)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 75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문종실록』 권 9, 문종 1년 9월 5일 경자)

정분의 보고에는 고성읍성의 상세한 규격이 묘사되어 있다. 둘레와 높이는 물론이고, 적대와 삼문, 옹성, 여장 등의 규격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높이를 하나로 표시한 것을 보면 평지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이며, 삼문이었다고 하여 산을 등지고 축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분이 보고한 고성읍성은 뒷날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실린 세종 30년에 축조했다는 읍성일 것이다. 정분은 축조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고성 읍성을 보았기 때문에 개축하거나 시급히 쌓아야 할 성곽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될 읍성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동일한 성곽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따라 그 둘레에 차이가 있다. 정분은 3,011척으로 보고했는데,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는 4,069척 2촌으로 기록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둘레가 3,524척이라고 하였다. 이는 조사과정의 오류로 볼 수도 있으나, 정분이 조사한 시점이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세종 30년 축조 당시는 둘레 3,011척, 높이 12척의 규모였던 것이 뒤에 증축 확장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높이를 15척으로 기록하고 있어 정분 조사 당시 높이 12척에서 3척이 올라가 있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고성에는 정분이 조사한 이 읍성 이전에 이미 읍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읍성을 축조했다는 세종 30년보다 훨씬 이전인 세종 7년(1425)에 편찬한 『경상도지리지』에서 고성 읍성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읍성은 둘레가 285보 4척, 넓이 5결 17부에 우물이 넷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도 세종 30년에 축조된 읍성을 소개하지 않고 이 읍성을 소개하여 그 둘레가 285보라고 하였다. 1보 6척으로 계산하면 1,710척 정도 규모의 성곽이었다. 세종 30년 축조의 성곽은 이 읍성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30년 이전 고성 읍성이 이미 있었다면, 이 읍성의 축조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여말선초 남해 연안의 현안문제였던 왜구의 침입을 감안하면 읍성 축조 시기를 고려 우왕대 이후로 추정해볼 수 있다. 고성지역은 경남 지역에서 왜구 침탈을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우왕대 여러차례 침탈하여 선박을 불태우고 인명을 살상했다. 우왕 2년 6월에 왜적이 고성현을 불태우고 약탈했다고 전하는데, 이 때 관아가 자리잡고 있던 치소(治所)마저 공격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치소 자체를 옮겨야 할 국면에 처하게 되었고, 이 후 어느 시기에 현재 읍성 자리에 성곽을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성 지역의 왜구 침탈은 우왕 7년을 고비로 그치게 되는데, 이 후 어느 시기에 치소 복구차원에서 치소를 조선시대 치소 지역으로 옮기고 읍성을 축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왜구 침탈을 많이 받았던 동래 지역에서도 우왕 13년 박위 주도 하에 동래 읍성을 축조한 것을

보면, 고성 지역에서도 왜구 침입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그 대비책의 하나로 새로운 읍성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초 읍성 지역, 즉 치소가 이전 어느 시기에 이동한 것이라면, 이전의 치소 즉 고려시대 치소는 어느 곳에 자리잡았던 것일까? 물론 이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려면 위에서 언급한 당시 현존 성곽 외에 이전에 고성 지역에 있었던 성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다음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남산(南山) 【현 남쪽 2리 지점에 있으며 옛 성터[古城基]가 있다.】 불암산(佛巖山) 【현 서쪽 2리 지점에 있으며, 옛 토성(土城) 터가 있다.】 성산(城山) 【현의 북쪽 24리에 있으며 옛 성터[古城基]가 있다.】성현(城峴) 【현 서쪽 60리 지점에 있으며 옛 성터[古城基]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고성현 산천)

○ 성황사(城隍祠)는 현 서쪽 2리 지점에 있다. 그 지방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5일까지 모여서 두 대(隊)로 나눈 다음, 사당(祠堂)의 신상(神像)을 싣고 화려한 깃발을 세우고 여러 마을을 두루 들른다. 마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제사하고, 광대[儼人]가 다 모여서 온갖 놀이가 벌어진다.(위의 책, 사묘)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현 산천조에 의하면, 당시 기준으로 고성 지역에는 옛 성터가 남산, 불암산, 성산, 성현 등 네 곳에 있었다. 옛 성터 성곽이 존재했던 시기의 하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말까지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옛 성곽의 수가 넷이라는 것은 아마 고려시대 고성 지역에 부곡제 영역이 많이 분포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고성 지역 네 곳의 성터 가운데 불암산의 성터가 주목된다. ‘옛 토성터[土城古基]’라고 하여 여기에 성터가 있었는데, 이 성터가 토성의 터라 하고 있어 성곽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형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토성은 주로 삼국시기에 많이 축조되었지만, 나말여초 호족들의 근거지가 토성인 경우도 있으며, 사천의 통양창성(通陽倉城)이나 순천의 해룡창성(海龍倉城)처럼 조창 지역의 성곽이 토성이었다.

이들 토성은 조선초까지도 읍성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상도의 경우 언양, 성주목, 선산도로부, 함양군의 읍성을 토성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적소에서 ‘고읍성’ ‘고성’으로 전하는 성곽 가운데 토성인

것이 많다. 동래의 고읍성은 반은 토축, 반은 석축으로, 동평현의 읍성도 석축과 토축이 반반인 것으로, 기장의 고읍성도 토축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초 지리서에서 경상도 지역 토성의 현황을 조사하면 다음표와 같다.

군현	성곽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속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군	고읍성			4,430척(동남 석축, 서북 토축, 금폐)
동평현	읍성	264보		3,508척(동남 석축, 서북 토축, 금폐)
기장현	고읍성			3,208척(토축)
언양현	읍성	157보(토성)	1,427척(고8척, 홍무경오 토축)	1,498척(고8척, 토축), 3,064척(고13척, 弘治경신 석축)
사천현	고성			통양창성(3,086척, 토축)
진주목	고성			송대산성(4,073척, 토축, 금폐), 성산성(동쪽2,814척, 토축, 금폐)
함양군	읍성	433보(토성)	1,635보(척?) (고8척, 경오년토축)	735척(홍무경신 토축)
	고읍성			관변리 소재(관아와 4리)
경주부	고성			금성(金城, 2,407척, 토성) 월성(月城, 3,023척, 토축) 만월성(滿月城, 4,945척, 토축) 남산성(南山城, 7,544척, 토축)
성주목	읍성	474보(토성)		읍성(4,052척, 토축)
선산도호부	읍성	456보(토성)		읍성(2,740척, 고려말 이득진 토축)
영일현	고읍성			900척(토축, 금폐), 고현성(1,00척, 금폐)
홍해군	산성			망창산성(望昌山城, 6,000척, 토축, 금폐)
의성현	고읍성			4,720척(토축, 금폐)
영덕현	고성			3,300척(토축, 금폐)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사 당시까지 토성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곳은 기장과 언양, 함양, 성주, 선산의 읍성, 사천의 통양창성, 경주의 금성, 월성, 만월성, 남산산성 등이었다. 나머지 토성은 ‘금폐(今廢)’로 표현하고 있어 성곽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성벽 등은 남아 있어서 조사대상이 되어 그 규모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 등에 수록하였다.

고성의 토성처럼 ‘옛 토성터[土城古基]’로 표현되고 그것도 산천조 등에 수록된 경우는 고적조에 수록된 토성보다 성곽의 파괴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당시 성벽의 일부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옛 토성터로 묘사한 것이다. 이 토성도 당시 그 규모를 조사했다면 둘레와 높이를 묘사하여 고적조 등에 ‘고읍성’으로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당시 고성의 읍치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는 이 토성은 고려시대 어느 시기까지는 토성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했을 것인데, 이곳이 고려시대 고성의 치소(治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의 성황사가 읍치로부터 서쪽으로 2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 것이 주목된다. 성황사는 성황신을 모시는 곳이었고, 성황신은 국가나 고을의 수호신과 같은 지위를 지닌다. 고려시대 성황신으로 추앙된 인물들은 나말여초 호족이거나 고려건국 후 공신에 포함되는 인물들이 많았다. 여수순천의 성황신 김충, 곡성의 신승겸, 양산의 김인훈, 밀양의 손공훈 등이 모두 그러하다.¹⁸⁾

고성의 성황신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고성 지역의 유력한 토성층인 고성이씨 시조이거나 아니면, 신라말 이곳의 태수를 역임했던 무열왕 후손 김양(金陽)일 수도 있겠다. 특히 김양은 김주원의 증손으로서 흥덕왕 3년(828) 고성군(固城郡) 태수를 지낸 후 중원소경(中原小京)의 장관, 무주도독(武州都督)을 역임하고, 청해진 장보고 세력과 연합하여 민애왕(閔哀王) 4년(839) 4월 신무왕(神武王 ; 김우징)을 즉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태자 문성왕(文聖王) 즉위 후 시중 겸 병부령을 역임하면서 정치권력과 군권을 장악하다가 향년 50세로 문성왕 19년(857) 8월에 사망하였다.¹⁹⁾ 문성왕은 그에게 서발한(舒發翰)을 추증하고 부의(賻儀)와 장례를 모두 김유신의 예에 따라 하게 하는 등 극진히 예우하였다.

김양에 대해서는 민애왕을 제거한 후 “본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이므로 지금 그 죄수가 죽었으니 귀족 남녀와 백성들은 마땅히 각각 편안히 거처하여 망동하지 말라!”고 위무했다는 이야기나, 왕위계승전을 벌이던 중 자신의 다리를 쏘아맞췄던 배훤백(裴萱伯)에게, “개는 제각기 주인 아닌 사람에게 짖는다. 네가 그 주인을 위하여 나를 쏘았으니 의사(義士)다. 내가 따지지 않겠으니,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용서했다는 이야기들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김유신에 비견되는 그의 지위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태수로 부임했던 고성 지역에서는 그를 성황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 시기는 이 후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전개되고 지역마다 유력층인 호족이 등장하

18) 나말여초 호족이나 개국공신이 성황신으로 추앙되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 1991.

변동명, 「고려시대 순천의 산신·성황신」, 『역사학보』 174, 2002.

변동명, 「김충의 성황신 추앙과 여수·순천」, 『전남사학』 22, 1004.

19) 『삼국사기』 권 44, 열전 4, 김양전.

여 세력을 결집해나가는 현실 속에서 지역의 방위와 수호가 필요해진 나말여초 변혁과정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성황사는 본래 치소 안에 자리잡아 성황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된다. 그런데 고성의 성황사는 조선의 읍치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서쪽으로 2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불암산의 토성과 연관시키면 이 곳에 성황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읍치와 이격된 성황사는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었으며, 경상도 지역만해도 66개 군현의 성황사가 읍치와 이격되어 있었다.²⁰⁾

이들 조선시대 현 읍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황사는 이전 치소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격된 성황사들이 산지에 자리잡고 있는 점을 보면, 고려시대 치소성의 입지, 즉 낮으막한 산을 배경으로 한 산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연관이 된다.²¹⁾ 이같은 연구를 참고할 때, 읍성에서 서쪽으로 2리 정도 떨어진 불암산에 위치했던 토성은 고려시대 고성현의 치소성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최근 고성읍 서외리 49번지 일원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축 토성이 발견되었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성의 북쪽과 남쪽에는 성벽을 둘러 판 물이 없는 못인 외황(外隍)과 내황(內隍)이 있는 구조이고, 토성의 내벽 아랫쪽에서는 돌로 기초를 쌓은 기단석렬(基壇石列)과 고려시대 보수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석벽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성곽 주변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 토기편, 고려시대 자기편,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기와도 대량 발견되었다. 특히 기와에서 '이품(二品)○○', '보승(保勝)', '양호상(養戶上)' 등의 명문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품과 보승은 고려시대 주현군의 병종인 보승군과 이품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고성지역에는 주현군으로 보승(保勝) 26명, 정용(精勇) 53명, 일품군(一品軍) 109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명문기와를 통해 고성에 일품군뿐 아니라 2품군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승군과 정용군은 중앙 군사조직인 경군(京軍)의 소속 병종이기도 하여 번상 시위의 대상이었고 그 댓가로 군인전을 지급받는 등 주요 병종이었고, 일품군 또한 번상 시위의 대상이었으나 노동부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2품군은 중앙정부의 파악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1품군과 함께 향리가 지휘하는 노동부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양호는 고려시대 군호(軍戶)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현역 군인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존재로서 조선시대 봉족(奉足), 보인(保人)과 같이 기능하였다.²²⁾ 군호는 군인 1명에 양

20) 최중석, 「조선 초기 성황사의 입지와 치소」, 『동방학지』 131, 2005, 44쪽, <표1>경상도 지역 성황사의 위치.

21) 최중석,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 『역사교육』 95, 2005.

22) 이상국, 「고려시대 군역차정과 군인전」, 『한국중세사연구』 15, 2003, 257쪽.

호 2명으로 구성되었고, 군인이 군에 복무하면 양호는 해당 군인에게 양곡을 대어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번 발굴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명문기와들은 모두 고성의 군사조직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 토성이 고려시대 치소성(治所城)으로 기능하면서 군사행정을 주관했던 역사적 사실이 명문기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토성의 규모와 동반 유물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들 기와의 명문을 놓고서만 보아도 이 토성이 치소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고성의 지방행정과 담당자

고려시대 지방행정 편제인 군현체제는 크게 일반 군현에 해당하는 군현제 영역과 향·소·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인 부곡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군현제 영역은 다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읍(主邑 ; 주군, 주현 등)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읍(屬邑 ; 속군, 속현 등)으로 구분되었다. 고려시대 520개 군현 가운데 주읍은 146개이고 나머지 군현은 속읍으로 편제되고 있었다. 부곡제 역시 속현과 마찬가지로의 행정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시대 고성은 주읍으로서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주관하고 있었다. 성종 14년 10도제가 시행되면서 고성은 산남도의 고주(固州)로 편제되고 자사(刺史)가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담당했다. 10도제 하에서 전국을 10도·128주·449현·7진으로 개편하고, 양주(楊州)·충주(忠州)·청주(淸州)·경주(慶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해주(海州)·황주(黃州)·등주(登州)·영주(寧州) 등 12주에 절도사를 파견하였으며, 이하 각 주(州)에도 다음 표와 같이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練使)·방어사(防禦使)·자사(刺史) 등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유수	절도사	도호부사	도단련사	단련사	자사	방어사	계
2	12	5	7	11	15	21	73

이 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모두 73 곳으로, 고성에는 자사(刺史)가 파견되었다. 자사는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때부터 있었으나, 당에서 안사(安史)의 난 이후 절도사 이하 관찰사·단련사·자사·방어사를 설치하고 외관제를 편성했을 때 그 하나로 지방에 파견된 것이었다. 고려에서 이를 수용한 것은 지방세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자사가 설치된 지역은 중원도(中原道)에 제주(堤州 : 체천)·진주(鎭州 : 진천),

하남도(河南道)에 인주(仁州 : 아산)·임주(林州 : 임천), 영남도(嶺南道)에 용주(龍州 : 용궁)·계주(稽州 : 영동)·선주(善州 : 구미)·길주(吉州 : 안동), 영동도(嶺東道)에 영주(永州 : 영천)·하주(河州 : 하양)·함주(咸州 : 함안)·밀주(密州 : 밀양), 산남도(山南道)에 고주(固州 : 고성), 해양도(海陽道)에 궤주(貝州 : 보성)·광주(光州 : 광주) 등 15주로서 모두 남방의 도에 위치해 있다.

성종 14년에 개편된 12절도사체제는 10년 후 목종 8년(1005)에 12절도사와 4도호부, 동서북계방어사, 현령, 진장 등만 남기고, 나머지 관찰사, 도단련사, 단련사, 자사 등은 모두 혁파되었다. 따라서 고성의 지방행정과 군사적 업무를 담당했던 고주자사도 이때 폐지되어 새로운 지방관을 기다리게 되었다.

자사가 폐지된 이후 고성에는 한동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현종 9년(1018)의 전면적 지방제 개편에 따라 고성은 거제현의 속읍이 되어 거제현령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성이 속읍에서 주읍으로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문종 30년에 제정된 녹봉 지급규정에서 녹봉 지급의 대상에 고성현령과 고성현위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면, 늦어도 문종 30년(1076) 이전에 거제현의 관할에서 독립하여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읍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현종 9년 지방제 개편에 따라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읍의 읍격(邑格)은 경/도호부·목/방어주진·지주부군/현·진/으로 구분되었으며, 읍격(邑格)에 따라 지방관은 그 지위와 호칭을 달리했다. 아울러 지방에 따라서는 관관, 사록, 장서기 등 속관(屬官)이 함께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보좌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품 이상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경(京)	유수(留守)	부유수		관관(判官)	사록(司錄), 장서기(掌書記)	법조(法曹)	의사(醫師), 문사(文師)
도호부(都護府)·목(牧)	사(使)	부사		관관	사록, 장서기	법조	의사, 문사
방어주진(防禦州鎭) 지주부군(知州府郡)			사(使) (知事)	부사(副使)	관관(判官)		
현(縣)					령(令)	위(尉)	
진(鎭)					장(將)	부장(部將)	

고려시대 고성의 지방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다른 지역의 지방행정과 마찬가지로 고성현에서도 수령과 향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대민지배 업무인 조세 수납과 군역을 포

합한 노동력 징발 등을 수행하였을 것이고, 고성 지역사회의 동향을 보고하는 한편 지역사회 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지방행정이 어떠했는지, 당시 지방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연관하여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현종 9년(1018) 2월. 모든 주(州)와 부(府)의 관원의 직무상 수칙 6개 조항을 새로 제정하였다. 첫째는 백성들의 고통을 살필 것, 둘째는 검은 인끈을 받은 장리[黑綬長吏]들의 능력을 살필 것, 셋째는 도적과 간교한 자들을 살필 것, 넷째는 법으로 금지한 규정을 백성들이 위반하는지 살필 것, 다섯째는 백성들이 효도·우애·청렴·결백을 지키는지 살필 것, 여섯째는 아전들이 국고를 탕진하는지 살필 것 등이다.(『고려사』 권 75, 지 29, 선거 3, 전주, 選用守令)

○ 우왕 원년(1376) 2월. 다음과 같이 교서를 내렸다. “지방 수령의 성적을 고과할 때는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戶口)의 증가, 부역(賦役) 부과의 균등, 소송(訴訟) 절차의 간명, 도적의 근절 등 다섯 가지 일로 성적을 매기도록 하라. 교체되는 자는 반드시 신임 관리의 부임을 기다렸다가 사무를 인계한 다음 임금을 알현하도록 하라.” (위와 같은 책)

현종 9년 2월에 제정된 주부(州府)의 관원이 수행해야 할 여섯가지 의무사항은 크게 대민 업무와 향리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민업무는 우선 백성의 고통을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적과 간교한 무리를 근절시키는 일, 백성의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효도와 우애, 청렴과 결백의 사회윤리를 유지시키는 데 있었다. 지방관의 업무 가운데는 향리에 대한 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향리는 지방행정의 동반자이면서 다른 한편 통제의 대상이었다. 수령은 우선 장리(長吏)의 능력을 평가하여 지방행정 운영에 참여시키고, 항상 국고 탕진 즉 지나친 재정 지출을 일삼지 않는지 살피도록 하고 있다.

우왕 원년 5월 교서에서 제시된 수령오사(守令五事)는 전야벽(田野闢)·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도적식(盜賊息) 등으로, 수령은 토지 개간,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세 부과의 균등화와 소송의 간결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며, 도적 발생을 막는 등 치안 유지에 힘써야 했다. 수령5사에 반영된 고려시대 수령이 수행하는 지방행정은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정, 치안유지 등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1) 수령

고성에 파견된 지방관은 현령과 현위였다. 명종 2년(1172)에는 현위 1명이 추가 배속되기도 했다.²³⁾ 당시 좌승선 이준의(李俊義)는 53개의 속읍에 임시 지방관인 감무를 파견하

고, 안동 속읍인 보주(浦州)를 주읍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고성에 현위 1명을 추가 파견하라고 건의하였다. 이준의가 당시 집권자 이의방의 형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인지 그대로 수용된 것이었다.

고성에 현령과 현위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지만, 역대 고성 수령의 내역은 몇 명 확인되지 않는다. 『읍지』 등 지리서에서도 신라말 고성의 지방관으로서 흥덕왕 3년에 김양(金陽)이 고성 군 태수를 역임한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고려시대 지방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

고려시대 고성현령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권신유(權臣由)와 위양용(魏良用) 두명 뿐이다. 권신유는 무인집권기인 최항집권기에 고성의 현령이었던 것 같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드러나고 있다.

○ 최항(崔沆)이 이선(李儉) 등 네명을 죽였다. 일찍이 최항이 승려로 있을 때 보주부사(浦州副使) 조염우(趙廉右) 및 도강감무(道康監務) 박장원(朴長源)에게 악감을 품고 있다가 권력을 잡게 되자 그들을 섬으로 유배보냈다. 시어사(侍御史) 이선이 평소 두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경상도 안찰사(按察使)로 고성(固城)에 당도하자 두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 현령 권신유(權信由)도 참석했다. 뒤에 어떤 승려가 최항에게, 이선이 권신유와 함께 조염우 등을 은밀하게 불러서 변란을 모의하고 있다고 참소했다. 이에 최항이 이선 등 네 사람을 강물에 던져 죽이니, 당시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고려사절요』 권 16, 고종 37년 12월)

고종 36년 11월 무인집정 최이(崔怡)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최항은 집권과정에 저항했던 정치세력을 숙청하면서 시어사 이선, 고성현령 권신유, 보주부사 조염우, 도강감무 박장원 등 네 명을 숙청하고 있다. 당시 경상도 안찰사였던 이선이 고성현령 권신유와 함께 반란을 모의했다는 승려의 참소를 구실삼아 처형한 것이다. 권신유의 처형 시기가 고종 37년 12월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고성현령으로 파견된 시기는 고종 37년 초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현령으로 왔던 다른 한 사람인 위양용은 공민왕대 왜구 토벌과 관련해서 확인된다. 다음의 내용 그것이다.

○ 도평의사(都評議使)가, “전라도도진무(全羅道都鎭撫) 유익환(兪益桓)이 왜적과 전투를 벌여 수십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으며, 경상도진무(慶尙道鎭撫) 우승길(牛承吉)과 고성현령(固城縣令) 위양용(魏良用)도 역시 왜적과의 전투에서 일곱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으니 이들을 모두 중용하소서.” 라고 건의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고려사』

23) 『고려사』 권 19, 세가, 명종 2년 6월 입술.

권 39, 세가, 공민왕 7년 7월 신해)

공민왕 7년(1358) 7월 도평의사사는 전라도 도진무 유익환, 경상도 진무 우승길과 함께 고성현령 위양용을 중용하라고 건의하고 있다. 왜구 일곱 명을 사로잡거나 죽인 전과를 평가한 것이다. 위양용이 전과를 올린 전투는 같은 해 3월 고성의 각산수(角山戍) 전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 왜구는 우리 선박 3백 척을 불태우는 피해를 입혔다.²⁴⁾ 피해는 입었지만 고성현령 위양용은 이 전투에서 왜구를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위양용이 각산수 전투에 참여했다면, 그가 고성현령으로 부임한 시기는 공민왕 6년 경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과를 평가받아 발탁되었으므로 그가 이임한 시기는 공민왕 7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다.

고성현에는 현령 뿐 아니라 현위 2명도 파견되어 현령의 행정을 보좌하고 있었다. 문종 30년의 녹봉 지급규정에 따르면 고성현위는 16석 10두(인종대 녹봉규정에서는 23석 5두)의 녹봉을 받았는데, 고성현령의 녹봉이 26석 10두(인종대 규정에서는 33석 5두)였기 때문에 현령과 10석의 차이가 있다.

현위 파견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종 43년(1256)에 전국의 현위를 혁파하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고성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 현위를 모두 혁파하게 된 사정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현령과 같등 대립으로 군현 행정의 난맥상을 부르게 됨으로써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고성현에는 속관이 파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현위는 혁파되기 이전까지 현령을 보좌하면서 고성의 지방행정과 군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성 현령은 현위의 보좌를 받고 지역 내 향리층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향리

고려시대 지방행정을 보좌하는 한 축은 지방 향리(鄕吏)가 담당했다. 향리의 호칭은 이들이 속한 고을의 읍격에 따라 주리(州吏)·부리(府吏)·현리(縣吏)·부곡리(部曲吏)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향리는 주읍 뿐만 아니라, 속읍, 부곡계 영역에도 자리잡고 있었다. 향리들은 대민업무의 실질적 종사자로서 조세와 역역의 징수를 비롯하여 간단한 소송을 처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었다. 특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읍에서는 이들 향리가 수령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역을 담당한 향리들에게는 그에 상

24) 『고려사』 권 39, 세가, 공민왕 7년 3월 기유.

응하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고, 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지방 토착성을 바탕으로 지방사회의 유력자로서 그 위상을 유지했으며, 이직(吏職)의 세습을 통해 향리층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향리는 나말여초 지방호족에 기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토성(土姓)층인 이들은 치소(治所) 지역에 자리잡은 읍사(邑司)조직을 통해 수령의 통제를 수용하면서 지방행정을 보좌하는 한편, 향촌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읍사조직은 성종 2년의 향리직제의 개편에서 가시화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호부(戶部) : 낭중(郎中) - 원외랑(員外郎) - 집사(執事)
사호(司戶) 호정(戶正) 부호정(副戶正) 사(史)
당대등(堂大等) - 대등(大等) - 병부(兵部) : 병부경(兵部卿) - 연상(筵上) - 유내(維乃)
호장(戶長) 부호장(副戶長) 사병(司兵) 병정(兵正) 부병정(副兵正) 병사(兵史)
└창부(倉部) : 창부경(倉部卿)
사창(司倉) 창정(倉正)

지방 호족의 통치조직이었던 여말선초 관반(官班)체제에서 향리직제로 전환된 읍사조직에는 지역의 유력 토성이 호장, 부호장의 직을 갖고 그 예하에 3개의 사(司)를 두어 경, 낭중, 원외랑 등의 향리직을 두어, 이를 통해 향읍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수령 지휘 하에 조세 수납과 노동력 징발 등 수취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농경의 권장과 향촌의 예속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다.

현종 9년(1018)에는 군현 향리의 정원 수도 정해졌다. 전면적 군현개편과 함께 향리 직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향리의 정원 수는 고을 규모의 대소에 따라 정(丁) 수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현종 9년 향리 정원표>

	5도(주부군현)				양계(동서방어사, 진장, 현령관)		
	1,000정이상	500정이상	300정이상	100정이하	1,000정이상	100정이상	100정이하
호장(戶長)	8	7	5	4	6	4	2
부호장(副戶長)	4	2	2	1	2	2	1
병정(兵正)	2	2	2	1	2	2	1

부병정(副兵正)	2	2	2	1	2	2	1
창정(倉正)	2	2	2	1	2	2	1
부창정(副倉正)	2	2	2	1	2	2	1
사(史)	20	14	10	6	10	10	6
병사(兵史)	10	8	6	4	6	6	4
창사(倉史)	10	8	6	4	6	6	4
공수사(公須史)	6	4	4	3	4	4	2
식록사(食祿史)	6	4	4	3	4	4	0
객사사(客舍史)	4	2	2	1	2	2	2
약점사(藥店史)	4	2	2	1	2	2	2
사옥사(司獄史)	4	2	2	0	2	2	2
계	84	61	51	31	52	50	29

향리의 정원 수는 1000 정 이상의 큰 고을 84 인에서부터 100 정 이하의 작은 고을 29-31인까지 읍격에 따라 그 정원의 폭은 컸다. 고성현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인구 수를 알 수 없어 정원을 확인할 길은 없다. 『경상도지리지』(1425) 단계 고성의 호구는 531호에 2,885구로 집계되고 있어 이 기준으로는 1000정 이상 군현이 될 것이지만, 이를 현종 9년 그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초 고성현은 호구 수에 있어서는 경남지역에서 진주, 밀양, 김해, 창원, 함안, 창녕 다음으로 많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최소 300정 이상의 군현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50 여명 이상의 향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고성현의 향리직은 이 지역 토성층이 담당했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성의 토성은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고성현의 토성>

군현·향부곡	토 성	군현·향부곡	토 성
고성현(固城縣)	이(李)·채(蔡)·박(朴) ·김(金)·남(南)	케촌부곡(跪村部曲)	남(南)
곤의부곡(坤義部曲)	박(朴)·김(金)	구허부곡(丘墟部曲)	박(朴), 김(金)
곡산향(曲山鄉)	김(金)	해빈부곡(海濱部曲)	박(朴), 하(河)
녹명향(鹿鳴鄉)	이(李)·김(金)·최(崔)	도선부곡(道善部曲)	김(金)

적진향(積珍鄉)	박(朴), 김(金)	죽림부곡(竹林部曲)	김(金)
보령향(保寧鄉)	박(朴), 김(金)	진여부곡(珍餘部曲)	김(金)
어례향(魚禮鄉)	박(朴)	박달부곡(博達部曲)	김(金)
의선향(義善鄉)	박(朴), 김(金)	계	27

고성현 본부에는 이씨 등 5개 성씨가 토성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고성현에 소재했던 부곡제 영역에도 토성이 분포되어 있었다. 모두 21 곳의 부곡제 영역 가운데 5개의 소와 활촌부곡, 발산부곡 7곳을 제외하고 14 곳 부곡제 영역에 22개 토성이 자리잡았던 것이다. 이들 토성에서 고성현에 배정된 향리 액수만큼 향리 수를 정하여 고성의 지방행정을 보좌했다. 특히 고성현에는 부곡제 영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부곡제 영역의 수취업무를 비롯한 행정 업무는 이들 향리가 담당하고 있었다.

3. 군사와 교통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의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군사와 교통에 관한 자료는 일부 전한다. 이를 중심으로 고성 지역사회의 군사와 교통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항목	내 용
군인	보승(保勝) 26명, 정용(精勇) 53명, 일품군(一品軍) 109명(『고려사』 시위군(侍衛軍) 30명, 영진군(營鎭軍) 90명, 선군(船軍) 327명(『세종실록지리지』) 당포 : 유군병선 8척, 무군병선 4척, 기선군 820명. 사랑 : 유군병선 7척, 무군병선 5척, 기선군 640명(『경상도속찬지리지』)
역원	춘원역(春原驛), 배둔역(背屯驛), 망린역(望隣驛)(『고려사』) 배둔역(背屯驛 ; 북쪽 27리), 송도역(松都驛 ; 북쪽 2리), 구허역(丘墟驛 ; 동쪽 30리)(『신증동국여지승람』) 도선원(道善院 ; 현동리), 성산원(城山院 ; 마암리)(『경상도속찬지리지』)
관방	가배량(加背梁 : 현 남쪽 17리), 당포(唐浦 ; 현 남쪽 47리), 번계(樊溪 ; 현 서쪽 33리), 사랑(蛇梁 ; 현 남쪽 수로 70리)(『세종실록지리지』)
봉화	미륵산(彌勒山)봉화, 우산(牛山)봉화, 천왕점(天王岾)봉화, 곡산(曲山)봉화, 좌이산(佐耳山)봉화(『경상도지리지』)

1) 주현군과 선군의 배치

고려시대 고성에 배치된 주현군(州縣郡)의 인원은 보승(保勝) 26명, 정용(精勇) 53명,

일품군(一品軍) 109명이었다. 양계 지방에는 주진군(州鎭軍)이 배치되었고, 5도와 경기지역에는 주현군(州縣軍)이 배치되는데, 그 도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 및 5도	보승(保勝)	정용(精勇)	일품(一品)	계
교주도(交州道)	133	2,224	1,527	3,884
양광도(楊廣道)	2,582	4,749	5,005	12,336
경상도(慶尙道)	2,627	4,811	5,702	13,140
전라도(全羅道)	1,425	5,021	4,618	11,064
서해도(西海道)	1,399	2,152	2,253	5,804
경기(京畿)	435	797	777	2,009
총 계	8,601	19,754	19,882	48,237

5도와 경기의 군사도(軍事道)에 소속된 주현군의 인원은 보승군 8,601명, 정용군 19,754명, 일품군(一品軍) 19,882명 합계 48,237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경상도의 주현군 수가 13,140명으로 가장 많은데, 고성지역을 비롯한 경상도의 군사도 별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군사도(軍事道)		병 종			
	군사도(軍事道)	속읍수	보승(保勝)	정용(精勇)	일품(一品)	계
경상도	울주도(蔚州道)	2	134	145	181	460
	양주도(梁州道)	2	57	147	173	377
	금주도(金州道)	5	188	278	431	897
	밀성도(密城道)	6	245	427	532	1,204
	상주목도(尙州牧道)	24	665	1,307	1,241	3,213
	안동대도호도(安東大都護道)	14	591	953	1,018	2,562
	경산부도(京山府道)	15	54	801	647	1,502
	진주목도(晋州牧道)	9	277	404	730	1,411
	함주도(陝州道)	12	373	229	448	1,050
	거제도(巨濟道)	3	-	50	128	178
	고성도(固城道)	0	26	53	109	188
	남해도(南海道)	2	(行首并)17	17	64	98
	계		2,627	4,811	5,702	13,140

고려시대 경상도의 군사도는 모두 12개였다. 경상도 지역 주읍 14개 가운데 경주와 예주를 제외하고 주읍이 모두 군사도가 된 것이다. 12개 군사도에 배치된 주현군 수는 읍세와 군사적 거점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주목도의 주현군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속읍이 24곳이나 포함되어 있어 읍세가 강했던 때문이고, 이는 경상부나 합주도도 마찬가지였다. 안동도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읍세와 함께 군사적 거점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 지역에 배치된 주현군 수 188명은 경상도 12개 군사도 중 10위로, 속읍을 거느리지 않았음에도 거제도보다 10명이 많고, 남해도보다는 90명이 많은 인원 수였다.

주현군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대는 보승군과 정용군이다. 그리고 동일한 주현군 소속이라 할지라도 그 기원을 달리하는 보승·정용군과 일품군은 구별이 되었다. 보승·정용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도 개경의 경비였다. 지방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교대로 개경에 번상하여 수도의 경비를 담당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가 교대로 양계에 들어가 국경의 방수에 충당되었다.

보승·정용의 또 다른 임무는 거주 주·현의 방위와 치안유지였다. 고을의 관아·창고·성곽 등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승군과 정용군의 일부가 교대로 고을 치소(治所)에 번상(番上)하였다. 보승군과 정용군은 외적의 방어나 반란의 진압을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다.

1품군은 보승·정용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해 군역이 파악되고 동원되는 부대였다. 주로 공역을 위해 동원되었으므로 역부(役夫) 또는 정부(丁夫)라고도 불리었다. 2·3품군은 중앙정부의 파악이나 통제 밖에 있던 군대로서, 1품군과 달리 거주하고 있는 군현 내의 노역에 동원되는 부대였다.

주현군의 지휘는 수령을 비롯한 별장(別將) 이하 교위(校尉)의 장교직을 겸한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주현군의 징발 대상은 농민층 가운데 군역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은 물론 경제력 능력을 갖춘 상층 농민이 주 대상이었고, 향리층도 포함되었다. 주현군은 군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군역 수행의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이 지급되었다. 군인에게는 군역 수행 기간 중에 한하여 군인전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고 군호를 보조하는 양호(養戶)가 지급되었다.

고성 지역에는 주현군과 함께 수군(水軍)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종 13년 1월 거제현령 진용갑(陳龍甲)이 주수(舟帥), 즉 수군을 거느리고 사도(沙島)에서 왜구를 격퇴시켰다는 것을 보면,²⁵⁾ 고성에도 수군이 배치되어 왜구 침입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수군이 편성되어 활동했던 사실 몇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5) 『고려사』 권 22, 세가, 고종 13년 2월 계미.

○ 제(制)하기를, “팔음도(八音島) 수군(水軍) 은질(殷質)과 양도(壤島) 수군(水軍) 광협(匡協)·관달(寬達)·영길(英吉)은 적(賊)을 사로 잡은 공(功)이 있으니 모두 중윤(中尹)을 제수(除授)하라.” 고 하였다.(『고려사』 권 7, 세가, 문종 즉위년(1046) 7월 신사)

○ 행영병마판관어사(行營兵馬判官御史) 신현(申顯) 등이 수군(水軍)으로 적(賊)을 영인진(寧仁鎭)에서 쳐서 20급(級)을 베풀었다.(『고려사』 권 12, 세가, 예종 3년(1108) 7월 계유)

○ 장군 이천(李旡)을 보내어 수군(水軍) 200여 명을 거느리고 몽고병(蒙古兵)을 남도(南道)에서 막게 하였다.(『고려사』 권 24, 세가, 고종 43년(1256) 6월 경신)

○ 전왕(前王)이 좌승지(左承旨) 김지겸(金之兼)을 보내와 보고하기를, “조성도감(造成都監) 관리 환이(桓頤)를 시켜 선군(船軍)을 거느리고 내영윤(內盈尹) 강순(康順), 호군(護軍) 이주(李珠)와 함께 일을 감독케 하여 시가(市街)의 양쪽에 장랑(長廊) 200간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고려사』 권 32, 세가, 충렬왕 33년(1307) 6월 병오)

○ 왜(倭)가 산음(山陰)·진주(晉州)·사주(泗州)·함양(咸陽)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니 사신을 서해도와 양광도 등으로 보내어 수군(水軍)을 뽑아 왜구(倭寇)에 대비하게 하였다.(『고려사』 권 134, 열전 47, 우왕 5년(1379) 9월)

수군은 고려전기부터 활동하여 문종대 동여진 해적이 침입했을 때 수군 은질 등이 크게 활약하고 포상을 받고 있다. 예종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할 때 영인진에서 공을 세운 것도 수군이였다. 인종대 김부식은 묘청의 근거지인 서경을 공격하면서 수군 4,600여 명과 전함 140척을 동원한 바 있다.²⁶⁾

여몽전쟁 시기에도 수군이 활약하여 몽고군을 방어하였고, 전쟁 종식 후 삼별초 항쟁이 전개되는 기간 동안 여몽연합군은 항쟁군을 진압하기 위해 수군을 동원했다. 제주도로 들어간 항쟁군을 진압하기 위해 김방경은 수군 10,000여명을 반남현에 주둔시킨 다음 전함 160여 척을 동원해 추자도에 도착하였다.²⁷⁾

충렬왕 1년과 7년 두차례 걸쳐 일본정벌을 단행할 때에도 수군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었다. 1차 정벌 때 여원연합군의 편성은 몽한군(蒙漢軍) 25,000명, 고려군 8,000명, 뱃사공 6,700명 정도였다. 2차 정벌때 여원연합군은 동로군(東路軍)과 강남군(江南軍) 양군으로 편성되어 동로군은 합포에서 출발하고, 강남군은 중국의 명주(明州)·정해(定海) 등 강남에서 출발하였다. 동로군은 총병력 40,000명에 전함 900척이었는데, 그 중 원나라가 30,000명, 고려군이 10,000만명이었으며, 전함과 사공 15,000명, 군량 11만석, 무기 등은 고려의

26) 『고려사』 권 98, 열전 11, 김부식(金富軾)전.

27) 『고려사』 권 104, 열전 17, 김방경(金方慶)전.

부담이었다. 강남군은 총병력 약 10만명에 함선 약 3,500척이었다.

왜구의 침입은 수군 전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주, 사천 등지에 왜구가 대거 침입하자, 그 대책으로 서해도와 양광도에 사신을 보내 수군 전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수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고성 등 연해지역에는 수군 조직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종실록목지리지』에는 고성현의 군인으로 시위군(侍衛軍) 30명, 영진군(營鎭軍) 90명과 함께 선군(船軍) 327명을 기록하였고,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는 당포의 유군병선 8척, 무군병선 4척, 기선군 820명을 사랑의 유군병선 7척, 무군병선 5척, 기선군 640명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고성 연안에 배치된 병선이나 기선군은 조선시대 당시에야 생긴 것이 아니라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수군조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역로의 운영

고성지역에는 주현군 배치와 함께 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고려사』 병지 역참조에 의하면 고려시대 전국의 역도(驛道)는 22개였고, 그 소속 역이 525개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순서	역도	구간	소속역	순서	역도	구간	소속역
1	산예도(狻猊道)	개성~용진	10	13	광주도(廣州道)	광주~연풍	15
2	금교도(金郊道)	개성~곡산	16	14	충청주도(忠靑州道)	수원~해미	34
3	절령도(岬嶺道)	봉산~평양	11	15	전공주도(全公州道)	전주~회덕	21
4	흥교도(興郊道)	영변~용강	12	16	승라주도(昇羅州道)	나주~순천	30
5	흥화도(興化道)	황주~안주	29	17	산남도(山南道)	전주~진주	28
6	운중도(雲中道)	평양~창성	43	18	남원도(南原道)	남원~순천	12
7	도원도(桃源道)	개성~회양	21	19	경주도(慶州道)	경주~평해	23
8	삭방도(朔方道)	안변~간성	42	20	금주도(金州道)	김해~양산	31
9	청교도(靑郊道)	개성~양주	15	21	상주도(尙州道)	상주~문경	25
10	춘주도(春州道)	춘천~횡성	24	22	경산부도(京山府道)	성주~보은	25
11	평구도(平丘道)	남경~영월	30	계	22		525
12	명주도(溟州道)	강릉~울진	28				

고성 지역에 설치된 3개의 역은 22개 역도 가운데 산남도(山南道)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음과 같이 산남도에는 18개 군현에 28개 역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산남도 역로망에 전라도 전주, 진안, 고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역로가 북쪽으로 전공주도(全公州道) 소속의 역로와 연결시키려는 것이었다.

○ 산남도(山南道)는 28개 역(驛)을 관할한다. 반석(盤石)역【전주(全州)】, 축산(築山)역【고산(高山)】, 단령(丹嶺)역【진안(鎭安)】, 평거(平居)역·정수(正樹)역·조촌(竈村)역·소남(小男)역【진주(晉州)】, 관율(灌栗)역【사주(泗州)】, 신안(新安)역【강성(江城)】, 울원(栗原)역·횡포(橫浦)역【하동(河東)】, 평사(平沙)역【악양(岳陽)】, 상녕(常寧)역【진해(鎭海)】, 완사(浣沙)역【곤명(昆明)】, 부다(富多)역【반성(班城)】, 지남(知男)역【의령(宜寧)】, 속양(速陽)역·권빈(勸賓)역【합주(陝州)】, 성기(星奇)역【거창(居昌)】, 무촌(茂村)역【거창(居昌)】, 유린(有隣)역【가수(嘉樹)】, 사근(沙斤)역【이안(利安)】, 춘원(春原)역·배둔(排頓)역·망린(望隣)역【고성(固城)】, 덕신(德新)역【남해(南海)】, 오양(烏壤)역【거제(巨濟)】, 달계(獺溪)역【청거(淸巨)】. (『고려사』 권 82, 지 36, 병 2, 참역)

역도인 산남도는 주로 오늘날 서부 경남일대와 전라도 전주, 진안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고성 지역에는 춘원역, 배둔역, 망린역 3개가 자리잡았다. 개설된 역 수로는 진주 4개 다음으로 많은 역이 있었던 셈이다. 고성 지역에 설치된 3개의 역은 조선시대에 가서 배둔역은 그대로이고, 춘원역은 구허역(丘墟)역, 망린역은 송도(松道)역으로 명칭이 바뀐다. 춘원역은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단계까지는 춘원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 구허역으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사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고성 지역 3개 역의 규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역명	위치	거리	역원	역마
배둔역 (背屯驛)	북쪽 27리	남:송도역 26리, 북:진해 상령역(常令驛)30리	역리 68명, 노 15명, 비 10명	중마(中馬) 2필, 북마(卜馬) 8필

망린역(望隣驛 ; 송도역)	북쪽 2리	남:구허역30리, 서:진주 영창역(永昌驛)30리	역리 25명, 노 3명, 비 1명	기마(騎馬) 5필, 복마(卜馬) 6필
춘원역(春原驛 ; 구허역)	동쪽 30리	남:거제 오양역(烏壤驛) 30리	역리 33명	대마(大馬) 1필, 기마 4필, 복마 2필

고성 지역 3개 역의 위치나 다른 역과의 거리는 고려시대의 그것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고성의 역들은 산남도 내에서는 30리 정도의 간격으로 남쪽으로는 거제의 오양역과 연결되고, 서쪽으로 진주 영창역과 동쪽으로는 진해의 상령역과 연결되고 있었다.

산남도 밖으로 고성 지역의 역로는 동쪽으로는 진해 상녕역을 거쳐 김해의 금주도(金州道)-경주도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순천의 승라주도(昇羅州道)로, 서북쪽으로는 남원도와 전공주도로, 북쪽으로는 경산부도-충청주도를 거쳐 개경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고려시대 역로는 이처럼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역로망을 형성하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 서북쪽으로는 의주, 동북쪽으로는 정주, 동남쪽으로는 동래현, 서남쪽으로는 진도현까지 여러 갈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로망 편제는 군사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양계의 거의 모든 방어군, 진, 현령관들과 그 속현들에 역이 배치되었다.

위 표 고성 지역 3개 역에 배속된 역리와 노비, 그리고 역마는 『여지도서』에 보이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것이라 볼 수 없지만, 그 규모는 다르나 고려시대에도 역호(驛戶)와 역리(驛吏), 그리고 역마가 배정되었을 것이다.

역에는 역호(驛戶)가 거주하면서 일반 군현민과는 다른 특정의 역을 부담하고 있었다. 역호는 역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6과로 나누어, 1과 75정에서부터 6과 7정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었다. 역호는 국명을 전달하거나 국가의 중대사 특히 군사적 긴급사항을 보고하고, 생산물의 운반을 중요한 업무로 하였다. 역에 주어지는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 등의 경작은 이 역호가 담당했을 것이다. 역에는 역리(驛吏)가 있어 역호를 관장하고 역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제 4절 고성 지역사회의 인구와 경제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기록은 거의 없다. 그래서 조선전기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서를 활용해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이들 지리서 가운데 『경상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초에 편찬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정보들은 고려말의 지역 사정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지리서에서 고성 지역의 인구와 경제 정보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성의 인구와 경제 표>

항 목		인구와 경제	
인 구	호수	531	
	구	남	2,885
		여	2,833
경 제	토지	3,941결 【논이 조금 많다.】	
	토의경종	벼·조·콩·보리(『세종실록지리지』)	
	수 취	공 부	목면, 저포(紵布), 정오승포, 갱미(更米), 간중미(間中米), 백미, 상중미(常中米), 조미(造米), 전미(田米), 진맥(眞麥), 태녹두(太菘豆), 진임자(眞荏子).(『경상도지리지』)
		토 산 공 물	꿀[蜂蜜], 밀[黃蠟], 표고버섯, 송이버섯, 작설다(雀舌茶), 모래무지, 건합(乾蛤), 대구, 문어, 생포(生鮑), 도음어(都音魚), 미역, 우무[牛毛], 세모(細毛), 어교(魚膠), 왕대[籊], 지초, 종이, 칠, 사슴가죽, 여우가죽, 삶가죽, 노루가죽, 산달피(山獺皮)(『세종실록지리지』)
		공 철 貢 鐵	세공 정철(正鐵) 339근(『경상도속찬지리지』)
	토 산	녹반(礪磻), 대구[大口魚], 전복[鮑], 해삼, 굴[石花], 청어, 문어, 전어, 홍합, 미역, 대[竹], 송이[松蕈], 석류, 유자, 왜저(倭楮), 표고[香蕈], 감, 황어, 조기[石首魚], 숭어[秀魚], 농어[鱸魚], 오징어[烏賊魚], 낙지[絡締], 곤쟁이[紫蝦], 차[茶].(『신증동국여지승람』)	
약재	백편두(白扁豆), 파고지(破古紙), 백작약(白芍藥), 맥문동(麥門冬), 방풍(防風)(『경상도지리지』)		
경 제 시 설	제언	부제(浮堤 ; 현동리, 관개 1결75부), 우산제(牛山堤 ; 울천리, 50결56부), 초모곡제(草毛谷堤 ; 마암리, 12결41부), 장현제(樞峴堤 ; 구내리, 12결?부), 장연제(獐淵堤 ; 현서, ?2결9부)(『경상도속찬지리지』)	
	염	염	
		공염분(貢鹽盆) 17좌, 견내량만호도군수염분(見乃梁萬戶道軍須鹽盆) 2좌, 구량	

	분	분수 24 좌	량천호군수염분(仇良梁千戶軍須鹽盆) 2좌, 번계만호도군수염분(樊溪萬戶道軍須鹽盆) 2좌, 사염분(사鹽盆) 1좌. (『경상도지리지』)
		염산지	산북리(山北里) : 자화포(資火浦) ○소포(○召浦) 당항포(堂項浦). 전0리(田0里) : 가화포(加火浦). 울천리(栗川里) : 소소포(召所浦). 춘원리(春元里) : 횡이천포(橫耳川浦) 춘원포(春元浦) 구허포(丘墟浦) 장평포(長平浦). 서리(西里) : 어항포(魚鄉浦) 쌍봉포(雙峯浦). 하리(下里) : 수대포(水大浦) 소을포(所乙浦) 지포(池浦) (『경상도속찬지리지』)
	포구	수월포(愁月浦 ; 남쪽 30리), 양지포(陽知浦 ; 남쪽 30리), 마소포(馬所浦 ; 현 서쪽 70리), 자화포(資火浦 ; 북쪽 35리), 가화포(加火浦 ; 북쪽 20리), 소소포(召所浦 ; 북쪽 10리), 춘원포(春元浦 ; 동쪽 20리), 구허포(丘墟浦 ; 동쪽 30리), 장평포(長平浦 ; 동쪽 50리), 어례항포(魚禮鄉浦 ; 서쪽 30리), 쌍봉포(雙峯浦 ; 서쪽 20리), 수대포(水大浦 ; 서쪽 20리), 지포(池浦 ; 서쪽 40리), 당항포(當項浦 ; 북쪽 30리), 소을비포(所乙非浦 ; 서쪽 15리) (『신증동국여지승람』)	
어장	종해도(終海島, 춘원리, 대구어), 수월포(愁月浦), 양지포(陽知浦), 마소포(馬所浦 ; 현서, 문어·홍어) (『경상도속찬지리지』)		

『경상도지리지』(1425)에 따르면, 조선초 고성의 인구는 531호에 5,718명(남 2,885, 여 2833)으로 집계된다. 호당 평균 인구는 10.8명으로 단혼 소가족 형태보다는 호의 규모가 거의 배가 될 정도로 큰 편이다. 이는 조선초 호 편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조선초 호의 구성이 편호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고성의 인구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는 『경상도지리지』 다음으로 빠른 것이 『호구총수』(1789)이다. 『호구총수』의 고성 인구는 9,679호에 41,823명이었다. 300여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인구가 7배 남짓 증가한 셈이다.

고려말 고성의 인구는 『경상도지리지』에 실린 인구 수보다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말 왜구 침탈에 따른 인명 피해를 감안하면 오히려 이 인구 규모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 고성은 오늘날 경남 지역에서 인구나 경지면적 등 규모 측면에서 읍세가 강한 곳이었다. 아래 경남지역 인구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초 경상남도 지역의 인구와 경지면적>

	군현	『경상도지리지』(1425) 및 『세종실록지리지』(1454)				『호구총수』(1789)		
		호	인구(명)			토지(결)	호	구
			남	여	계			
1	고성	531	2,885	2,833	5,718	3,941(논1/2강)	9,697	41,823
2	양산	425	937	851	1,788	2,030(논4/9강)	2,179	12,107

3	동래	290	1,151	1,265	2,416	1,723(논5/8약)	7,007	28,806
4	동평	108	342	285	627			
5	기장	174	397	620	1,017	730(논1/2)	3,133	12,962
6	울산	1,058	4,161	4,182	8,343	6,482(논4/9강)	8,577	32,382
7	언양	421	1,458	1,990	3,448	1,518(논1/2)	1,224	9,410
8	김해	1,290	6,642	7,230	13,872	7,809(논1/2약)	9,107	35,833
9	완포	37	179	153	332			
10	웅신	63	318	323	641		3,282	15,742
11	창원	944	4,066	4,212	8,278	4,663(논1/2강)	7,264	29,452
12	회원	150	889	1,026	1,915			
13	진해	202	953	?	?	765(논3/7강)	2,039	7,172
14	함안	732	3,266	3,421	6,687	3,976(논1/3)	5,184	22,841
15	칠원	337	1,331	?	?	1,819(논1/4강)	2,981	11,785
16	의령	504	1,629	?	?	3,558(논2/3약)	8,419	36,544
17	신변	555	982	?	?			
18	밀양	1,612	5,522	5,564	11,086	1,0285(논1/3약)	10,247	50,901
19	수산	93	356	322	678			
20	풍각	294	907	1,074	1,981		1,958	8,646
21	창녕	825	4,352	4,573	8,925	4,846(논1/3강)	6,432	34,767
22	영산	257	1,134	1,192	2,326	3,001(논3/10약)	4,380	20,412
23	계성	214	972	940	1,912			
24	합천	464	1,517	1,417	2,934	2,975(논2/5약)	4,140	22,190
25	야로	237	842	663	1,505			
26	초계	463	2,537	2,645	5,182	2,563(논3/10)	3,540	15,333
27	진주	1,628	5,906	6,039	11,945	12,730(논1/2약)	15,028	69,495
28	반성	277	687	723	1,410			
29	영선	254	748	774	1,522			
30	악양	61	181	196	377			
31	함양	428	1,948	1,981	3,929	2,473(논1/2약)	5,000	24,198

32	곤남	210	1,229	1,833	3,062	1,824(논1/2강)	3,805	17,312
33	남해	61	71	100	171		4,921	25,949
34	거제	123	423	522	945	709(논1/2강)	6,981	30,023
35	사천	370	1,817	1,569	3,386	2,077(논1/2강)	3,981	17,562
36	거창	505	1,640	1,510	3,150	3,423(논1/2약)	4,303	20,633
37	하동	346	1,108	1,052	2,160	1,272(논2/3약)	4,221	20,549
38	진성	234	872	?	?	1,750(논4/7강)	3,012	13,839
39	단계	139	496	?	?			
40	산음	257	1,138	?	?	1,535(논3/7)	2,542	10,778
41	안음	481	793	?	?	1,793(논1/2약)	4,003	16,602
42	삼가	307	2,027	?	?	1,913(논1/2약)	3,294	16,872

*. 인구는 『경상도지리지』, 전결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조선초 고성의 인구는 42개 군현 가운데 김해, 진주, 밀양, 창원, 울산, 창녕, 함안에 이어 8위이다. 경지면적 기준으로는 진주, 밀양, 김해, 울산, 창녕, 창원, 함안에 이어 마찬가지로 8위이다. 고성 지역사회는 인구나 경지면적 모두 상위에 속한 고을이었다.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의 경제와 산업은 그 입지 조건에 따라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수공업이 고루 발달하고 있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이기는 하였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업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소(所) 지역이 여럿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공업과 광산도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조선초 고성의 경지면적은 3,941결 정도였다. 이 중 수전(水田) 즉 논·밭의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당시 고성의 호수가 531호였으므로 호당 평균 7.4결 정도이다. 고성의 경지면적은 진주(5.7), 밀양(5.1), 김해(5.6), 울산(7.8), 창녕(5.9), 창원(4.9), 함안(5.4)에 이어 여덟 번째인데, 호당 평균 경지면적에서는 울산(7.8) 다음으로 2위이다. 인구에 비해 경지면적을 많이 확보했던 셈이다.

조선초기 농가 호당 보유 면적이 1결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매우 큰 것으로, 이것이 실제 민호가 보유하는 것이라면 당시 고성 주민의 경제적 처지는 양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성의 경지 가운데에는 국유지와 함께 고성 재지 세력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토지가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이같은 호당 평균 경지면적만 가지고 일반 민호의 경제형편을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성의 토양에 알맞은 재배 품종은 벼·조·콩·보리 등 곡류였다. 고성엔 논·밭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벼 생산이 많았고, 나머지 한전(旱田)에서 조와 콩, 보리를 재배했을 것이다. 벼 생산 증대를 위해 수리시설도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의 사정을 말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고성에는 현동리의 부제(浮堤), 울천리 우산제(牛山堤), 마암리 초모곡제(草毛谷堤), 구내리 장현제(槓峴堤), 현 서쪽의 장연제(獐淵堤) 등 5개의 제언이 있었다. 이 가운데 규모 50결 56부의 울천리 우산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곡류 외에 특용 작물도 재배되었던 것 같다. 수취 대상 품목이나 토산품에 목면, 꿀, 표고버섯, 송이버섯, 대, 유자, 감, 석류, 차 등 작물이 들어 있고, 약재로서 백편두(白扁豆), 파고지(破古紙), 백작약(白芍藥), 맥문동(麥門冬), 방풍(防風) 등을 들고 있어 이들이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성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업이 발달했다. 포구가 발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성의 포구로 수월포 등 15개의 포구를 소개하고 있다. 포구는 군사기능과 함께 어업 전진 기지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다. 포구에는 거의 소금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고성의 염산지는 14 곳이나 되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공염(貢鹽)으로 제공되고 일부는 민간에 공급되었던 것 같다.

고성 포구에는 어장도 발달했다. 어장은 종해도와 수월포, 양지포, 마소포가 더욱 유명해서 여기에서 대구와 문어, 홍어가 많이 잡히고 있었다. 고성의 토산 공물과 토산품에는 대구[大口魚], 청어, 전어, 황어,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농어[鱸魚], 오징어[烏賊魚], 낙지[絡締], 곤쟁이[紫蝦], 모래무지, 도음어(都音魚), 문어, 전복[鮑], 해삼, 굴[石花], 홍합, 건합(乾蛤) 등 어패류와 미역, 우무[牛毛], 세모(細毛) 등 해조류, 그리고 어교(魚膠)가 들어 있는데, 이들 해산물은 고성의 바다와 포구에서 생산되는 것들이었다.

제 5절 고려후기 고성 지역사회의 변화

1. 항쟁과 전쟁, 그리고 고성 지역사회

고려 중기 이후 여러 사회문제가 누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의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무신난 발생 이후 무인집권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민항쟁, 여몽전쟁, 삼별초항쟁, 그리고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 등 고려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대내 항쟁과 몽고침입을 막아내려는 대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같은 항쟁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고성 지역사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인종 6년 4월 거제 지역에서 ‘해적(海賊)’이 발생하였다. 거제의 속현이었던 명진현,

송변현, 아주현을 근거지로 한 해적 800여명이 거제 본부지역을 공략하고 있었다. 다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남쪽 지방에 해적이 자주 출몰하자 어사중승 정응문(鄭應文)을 선무사로 임명해 선무작전을 펴게 했다.(『고려사』 권 15, 세가, 인종 6년 4월 정사)

○ 그 해 중간에 진양통판(晉陽通判)으로 옮겼는데, 마침 해적 800여 명이 거제군(巨濟郡) 경계에 진을 치고 제멋대로 날뛰면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니 온 지방이 시끄러웠다. 안찰사 이중(李仲)과 선무사 정응문 등이 가서 설득하였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끝내 미쳐 날뛰면서 고슴도치와 매미 떼처럼 무기를 들고 왕명에 항거하였다. 공이 참지 못하고 의(義)를 보고 용기를 내어 혼자 말에 올라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다. 적의 장막 안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화(禍)와 복(福)으로 깨우치자, 힘들고 피곤한 무리들이 모여 듣고 풀이 바람에 눕듯이 따라왔다. 마침내 이들을 변방의 북쪽으로 나누어 보내니, 이로부터 온 경내가 다시 조용하게 되었다.(김용선 편, 『고려묘지명집성』 「왕충묘지명」)

○ 동남해안무사 정응문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명진현(溟珍縣)·송변현(松邊縣)·아주현(鵝洲縣)의 해적인 좌성(佐成) 등 820명이 투항해 왔기에, 합주(陝州) 삼기현(三岐縣)에 귀원장(歸原場)과 취안장(就安場)을, 진주 의령현(宜寧縣)에 화순장(和順場)을 설치해서 이들의 주거지로 삼게 했습니다.”(『고려사』 권 15, 인종 6년 10월 입자)

거제도 지역의 해적은 인종 6년(1128) 4월에 발생하여 같은 해 10월에 가서야 진압되었다. 해적이 발생하자 안찰사 이중과 선무사 정응문이 이들을 설득하여 난이 발생한지 6개월 만에 좌성 등 820명을 귀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들을 설득하여 귀순시키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거제 지역에서 해적이 발생했을 때, 안찰사 이중과 선무사 정응문은 왕명으로 이들을 회유해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이 “벌떼와 고슴도치처럼 미쳐날뛰며 무기를 들고 왕명을 거역했다”고 한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회유가 먹혀들지 않자 당시 진양통판으로 부임해 있던 왕충이 다시 설득에 나섰다. 왕충은 직접 해적의 근거지로 가서 담판한 것으로 보인다. 왕충은 화복론(禍福論)으로 그들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강은 전략을 구사했을 터인데, 뒷날 이들의 거류지를 확보해주는 것으로 보아 해적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거제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은 거제현의 속현인 명진·송변·이주현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이들 해적이 거제 지역과는 관계없는 타 지역의 해적인지, 이들 거제 속현의 주민으로 구성된 해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타 지역이나 외국의 해적이라면 본현인 거제현도 그 침탈의 대상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세 속현만을 들고 있고, 선무사 정응문을 비롯하여 왕충이 이들을 무력을 동원하여 격퇴하는 방식보다는 끊임 없이 설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집단적 거류지를 확보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적으로 표현된 이들은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을 ‘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저항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거제현의 속현과 부곡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연안지역 농어민층이 참여하여 전개한 생존권 확보 투쟁이었다.²⁸⁾ 고려시대 주읍과 속읍, 군현제 영역과 부곡제 영역으로 편제한 계서적 대민 지배방식이 속읍과 부곡제 영역에 대한 수탈을 가중시키고,²⁹⁾ 토지문제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모순이 무인집권기 농민항쟁을 불러왔던 것처럼, 이 때 거제 지역사회의 해적 발생도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것이었다.

거제 지역의 이같은 항쟁은 인접한 고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곳에 비해 부곡제 지역이 많았던 고성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부곡제 지역 주민이 동향을 주시해야 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와 함께 부곡제 영역을 축소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했을 것이다. 거제 지역의 항쟁은 고성의 부곡제 영역을 조기에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무인집권기에 발생한 진주 지역의 농민항쟁도 고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신종 3년(1200) 4월, 진주의 공사 노예들이 봉기하여 그들에게 직접 수탈을 가하는 주리(州吏)를 죽이고, 그들의 집 50여 채를 불태워버렸다. 진주지역 공사 노예의 항쟁은 신종 원년 만적(萬積)의 봉기와 명종 20년(1190)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던 경상도 농민항쟁에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적의 봉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당시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가 진주지역에서 공사 노예의 봉기로 나타났다. 진주의 노예들이 아전의 집과 관아를 불태우려 한 것은 노비문서를 태우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진주 지역 공사 노예의 봉기는 그 진압과정에서 지역 토호인 향리와 지방관의 대립으로 비화되었고, 주리 정방의가 난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몽전쟁이 직접적으로 고성 지역사회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나 고종 41

28) 최영호, 「13세기말 거제현의 출륙배경에 대한 검토」, 『석당논총』 31, 2002.

29) 박종기, 「12,13세기 농민항쟁의 원인에 대한 고찰」, 『동방학지』 69, 1990.

년(1254) 차라다이[車羅大]의 6차 침입때에는 몽골군이 대구지방을 거쳐 남진을 계속, 12월 초 단계현(丹溪懸)과 진주(晋州)에까지 내려옴으로써 고성 지역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비록 전쟁터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군인으로 차출되는 등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촌락과 주민이 살상당하고, 정부가 주민들을 산성이나 섬으로 강제 이주시킴에 따라 대대적인 주민 이동이 이루어져 촌락사회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었다.

여몽전쟁이 종식될 무렵 발생한 삼별초항쟁은 고성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까운 밀양 지역이 삼별초 호응 봉기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으며, 인근의 합포(마산)와 거제가 그 세력권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삼별초 항쟁 지도부는 남해 연안에 세력권을 확보하고자 마산, 김해, 동래, 남해, 창선, 거제 등을 장악하였다. 원종 12년(1271) 2월에 삼별초는 합포를 공략하여 이곳 지방관인 감무(監務)를 생포해 갔으며, 원종 13년(1272) 11월에는 다시 합포를 공격하여 전함 22척을 불사르고 몽고의 봉졸(烽卒) 4명을 생포하여 돌아갔다. 이어서 원종 14년(1273) 1월에는 삼별초가 합포에 정박 중인 전함 32척을 소각하고 몽고병사 10여명을 잡아 죽였다. 이같이 삼별초가 세 차례나 합포를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남해안 연안 고을이 그 영향권에 들어갔고 주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거제 지역이 삼별초 항쟁의 영향권 안에 다시 들어간 것은 원종 13년(1272년) 11월부터이다. 이 달에 삼별초가 거제현을 공격하여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 삼별초는 다시 합포를 공격하여 전함 22척을 불사르고 몽고의 봉졸(烽卒) 4명을 생포하여 돌아간 바 있다.³⁰⁾

거제에서 불탄 전함의 어떤 점함인지는 확실치 않다. 합포의 전함도 불태워진 것을 보면 이 때의 전함은 일본정벌을 준비하기 위한 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별초는 이를 목표로 공격했던 것이다. 더욱이 거제 현령을 나포한 것은 거제 지역사회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에는 삼별초만이 아니라 거제 지역 주민들, 특히 재지세력의 협조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수령을 살해하거나 나포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 재지세력 등 지역 주민이 가담해 있었다면 뒷날 반역으로 규정하여 징치의 대상으로 삼을 소지도 갖는 것이었다.

원종 13년 11월 거제가 삼별초에 장악된 후 더 이상 삼별초의 공격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를 근거지로 삼아 전개했던 삼별초 항쟁마저 원종 14년 4월 여몽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거제 지역은 삼별초 항쟁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0) 『고려사』 권 27, 세가, 원종 13년 11월 기사.

따라서 거제 지역이 삼별초 항쟁세력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동안 고성 지역사회도 그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별초 항쟁의 호응봉기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지역 토착세력이 이를 주도함으로써 항쟁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가 타격받을 소지를 안고 있었다. 우선 항쟁의 진압과정에서 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특히 항쟁을 주도했던 재지이족은 몰살되거나 삶의 터전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밀양의 경우 군현의 혁파되어 부곡으로 강등되는 것으로 보아, 항쟁이 진압된 후에 지역사회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통제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삼별초 항쟁 후 정부의 거제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밀양처럼 읍격의 강등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군현 자체를 이동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나타났다. 항쟁은 진압되었지만 재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거제현에 대해 주민과 치소(治所)를 모두 이동시켜 섬을 비워버리는 공도(空島)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 후 거제현과 그 속읍은 거창군의 속읍이었던 가조현으로 이동하여 조선 세종 4년에 복구할 때까지 1세기 넘게 행정 공백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삼별초 항쟁 후 거제 지역이 이처럼 공도 상태가 되면서 고성 지역사회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었다. 충렬왕 27년 고성현과 남해현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군현 개편이 이루어진 것도 그 영향이라 하겠다. 삼별초 항쟁이 진행되는 동안 고성 지역도 거제현의 대응방식과 비슷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현 병합 조치는 곧 철회되었다. 남해와 한 군현으로 묶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고, 거제가 공도 상태였기 때문에 고성의 군사적 거점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고성현은 그동안 거제현에서 담당했던 연안 방위는 물론 국방 업무까지 이어받아서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2. 왜구의 침탈과 고성 지역사회

고려말 왜구의 침입은 다시한번 고성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고종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왜구는 충정왕대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여 이후 서남해 연안지역은 물론 수도 개경까지 위협함으로써 국가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었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회수는 모두 529회인데 이것은 고종 10년(1223)부터 공양왕 4년(1392)까지 169년간의 통계이다. 왜구의 침입을 가장 많이 당했던 시기는 공민왕과 우왕때였는데, 특히 공민왕 때의 115회와 우왕 때의 378회를 합치면 493회로 이는 전체의 침입회수의 93%에 해당되는 것

이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경상도 연해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고성 지역은 왜구 침입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는 다음의 경상도 연해지역 왜구 침입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경상도 연해지역 왜구 침입 사례>

	고종-충목왕	충정왕-공민왕9	공민10-공민23	우왕즉-우왕7	우왕8-공양4	계
밀양			2	7		9
울주			3	6		9
언양				3		3
양주			2	4	1	7
영산				1		1
김해	4		2	4		10
동래		1	1	4		6
동평				1		1
기장				2		2
회원(합포)	2	2	1	4		9
구산			1			1
의창				3		3
진해			1	1		2
웅천	2			1		3
함안				2		2
고성	2	3	2	6		13
거제	1	1	1		1	4
남해		2	1			3
사천		2	2	2		6
하동			2	1		3
진주				2	1	3
악양			1			1
명진				1		1
영선				2		2

반성				2		2
산음				1		1
거창				1		1
함양				2	1	3
단계				1		1
야로				1		1
가수				1		1
계	11	11	22	66	4	114

고종 10년(1223) 5월 오늘날 김해지역인 금주(金州)를 노략질하면서 시작된 왜구의 침입은 고려말까지 114회에 이른다. 침입한 지역을 밝히지 않고 ‘경상도 연해 주현을 노략질했다’ 라고 기록한 경우도 있어 그 회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왜구는 고성, 거제 등 연해 지역에서부터 거창, 함양 등 내륙까지 침탈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있어서는 연해 지역에 집중되었다.

5회 이상 왜구 침탈을 받은 지역은 고성(13)에 이어, 김해(10), 밀양(9), 울주(9), 합포(9), 양주(7), 동래(6), 사천(6) 등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연해 지역이거나 밀양과 같이 수로에 연결해 있는 지역이었다. 이들 연해지역의 침탈 회수가 69회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왜구 침탈의 표적이 연해 지역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구는 2,3척의 배를 타고 와서 노략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할 때는 200-500척의 대규모 해적선단이 수천명의 인원으로 침범할 때도 있었다. 왜구의 침입목적은 재화의 약탈이어서, 이들은 곡식을 저장해둔 관창(官倉)을 습격하고 또는 해상에서 조운선을 공격하여 양곡을 탈취하거나 인명을 살상하였다.

고성지역에 처음 왜구가 침입하는 것은 충렬왕 6년(1230) 5월부터로, 이 때 왜구는 고성의 칠포(漆浦)를 침입하여 어민을 잡아갔다. 이후 왜구의 고성 침입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왜구의 고성 침입>

시기	침입내용
충렬 6/5	왜적이 고성 칠포에 침입, 어민을 잡아갔다. 대장군 한희유(韓希愈)를 보내 방어케 하고, 쿠치[忽赤]·순마(巡馬) 등 200명 차출 경상도 전라도 방수하다.

충렬 15/12 경인	왜선이 연화도와 저전도에 정박하다.
충정 즉위/2	왜적이 고성의 죽림과 거제를 노략질하였다. 합포천호 최선(崔禪), 도령 양관(梁琯) 등이 격파, 300여 급을 목베고 사로잡았다.
충정 2/6 정유	왜선 20척이 합포를 공격하여 군영을 불사르고 고성, 회원 등 여러 고을 침입.
공민 7/7 신해	고성현령 위양용(魏良用)이 왜적과 싸워 7명을 목베거나 포로로 잡음.
공민 10/4 병신	왜가 고성·울주·거제를 노략질하다.
공민 13/3 을해	왜가 고성·사주(泗州)를 노략질하다.
우왕 2/6	왜가 고성현을 불태우고 약탈했다.
2/11	왜가 진주 명진현을 노략질 하고, 또 함안·동래·양주·언양·기장·고성·영선(永善) 등을 불태우고 약탈하다..
2/12	왜가 합포군영을 불태우고, 양주와 울주 및 의창·회원·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동래·기장 등을 불사르고 약탈했다.
4/8	경상도원수 배극렴(裴克廉)이 옥지도에서 왜적을 쳐서 50급을 베었다.
4/11	신홍(信弘)이 고성군 적전포(赤田浦)에서 왜적과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그 나라로 돌아갔다.
7/7	왜가 고성현을 노략질하자 남질(南秩)이 전투를 벌여 8급을 목베었다.

왜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고종 10년부터 충목왕대까지 왜구의 공격 목표가 된 지역은 고성, 김해, 웅천, 거제, 합포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는 김해 지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 시기 왜구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침탈의 형태도 어민이나 노약자를 잡아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충정왕 2년(1350)부터 왜구의 침탈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왜구의 침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왜구의 규모나 공세가 강화되었다. 왜구는 이 해 2월 고성의 죽림(竹林)부곡과 거제현을 공격해 왔다. 왜구 침입에 맞서 고려는 합포 천호 최선과 도령(都領) 양관이 분전하여 왜적 300여 급을 목베거나 사로잡았다. 왜적 선단의 규모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정부에서도 왜구의 고성 침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경궁에서 왜적기양법석(倭賊祈禳法席)을 설행하여³¹⁾ 왜구 격퇴를 기원할 정도였다.

충정왕 2년 왜구의 고성 침입 후, 공민왕 9년 이전까지 왜구의 침탈 지역은 고성을 비롯

해서 동래, 합포, 거제, 남해, 사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왜구 선단 규모가 커지고 어민을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관청, 군영 등 공공 시설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충정왕 2년 6월 왜구는 선박 20척을 동원하여 합포 군영을 불태우고, 고성과 회원의 관아를 공격했다. 이 해 4월에는 왜선 100척이 순천부를 공략한 바 있다. 공민왕 원년 9월에는 왜선 50척이 다시 합포를 공격했으며, 공민왕 7년(1358) 3월에는 왜적이 사천의 각산수(角山戍)를 공격해서 우리 선박 300여 척을 불태운 바 있다. 왜구의 침탈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왜구는 공민왕 10-23년 사이 경남 연해 전 지역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공민왕 10년 한 해 동안 왜구는 고성을 비롯해 울주, 양산, 동래, 밀양, 김해, 사천, 거제를 공격하여 마을을 불태웠다. 공민왕 13년에는 이들 지역에다 하동, 진해가 추가적으로 공략의 대상이 되었다. 이 해 3월 왜구는 양산을 공격하여 200여 호를 불태우는 피해를 입혔다. 5월에는 경상도 도순문사 김속명(金續命)이 진해현에서 왜구 3,000여 명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공민왕대 마지막 해인 23년 3월에는 우리의 병선 40여 척을 불태우는 피해를 입혔고, 4월에는 왜구가 선박 350척으로 합포를 공격하여 군영과 병선을 불태우는 한편, 우리 군인 5,000여 명이나 살상했다.

우왕 즉위년에서 7년까지 경남 연해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입은 66회나 된다. 왜구 침입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고성 지역도 6차례나 공격당했으며,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왜구의 침입은 끝난다.

우왕 즉위 후 왜구의 침입은 밀양 공격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 12월 왜적은 밀성의 관청을 불태우고, 인명과 재물을 약탈해 갔다. 다음 해에도 다시 밀양을 공격해 마을을 불살랐다. 당시 방어 책임자인 만호가 이를 막지 못할 정도로 공세가 치열했다. 정부에서도 사태가 심각하다 판단하여 장군 최인철(崔仁哲)을 현지로 보내 안무하는 한편, 백관들에게 편민책을 올리도록 하였다.

우왕 2년(1376)은 왜구 침입으로 날이 셀 정도로 경남 연해 지역에 대한 왜구의 총 공세가 나타난 시기이다. 왜구는 이 해 6월, 11월, 12월에 걸쳐 고성을 비롯해 합포, 명진, 함안, 동래, 동평, 양주 언양, 기장, 영선, 반성, 울주, 회원, 의창, 밀성 등 15개 고을을 도륙했다. 고성은 한 해 동안 세차례나 공격당했으며, 다른 지역들도 2회에 걸쳐 거듭 침탈당했다. ‘불태우고 노략질하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 지역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우왕 3년 한 해 동안 왜구가 김해, 동래, 울주, 언양, 밀성, 의창 등 주로 동부 경남 연

31) 『고려사』 권 37, 세가, 충정왕 2년 2월 임인.

해지역을 공략하는 가운데, 우왕 4년 8월에는 경상도원수 배극렴(裴克廉)이 고성 옥지도에서 왜구를 쳐서 50 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배극렴은 전 해 12월 왜구가 김해, 의창 지역을 침탈했을 때에도 이들을 격퇴하는 공을 세운 바 있다.

우왕 5,6년의 왜구 침입은 내륙 지역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연해 지역 공략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인지 모른다. 우왕 5년 9월 왜구는 거창, 단계, 야로, 가수, 진주, 산음, 함양현 등을 공격했다. 도순문사 김광부(金光富)가 이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여 전사할 정도로 왜구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었다. 해인사에 보관 중이던 고려 역대실록과 여러 서적을 선산 득익사(得益寺)로 옮기는 것도 이때 왜구의 공격 때문이었다.

우왕 6년 10월 왜구의 김해 공격을 계기로 다시 연해지역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었다. 이때 왜구는 김해 촌락을 불태우고 가더니, 우왕 7년 6월 왜선 50척이 김해에 와서 산성을 포위하면서 압박해 왔다. 이 때 원수 남질(南秩)의 활약이 빛났다. 남질은 왜구를 반격하여 격퇴시키고, 울산, 양산, 언양 등지에서도 전과를 올렸다. 이 해 7월에 왜구는 김해를 다시 공격한 데 이어 고성에 침입했다. 고성의 왜구도 남질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는 왜구 8 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이번의 침입을 마지막으로 고성 지역에는 고려말까지 왜구의 침입이 없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왜구 침탈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고성 지역 차원에서는 오랜 기간 왜구의 노략질이 종식된 것이다.

이처럼 왜구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고성 지역사회는 인명 살상, 촌락 파괴, 관아 소실, 농토의 황폐화 등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인구이동 등을 불러와 지역사회의 변동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구 침입으로 고성 지역사회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겪으면서 국방상 주요 거점 지역으로 떠올랐다. 왜구의 침입이 시작되어 남방 연해지역이 국방상으로 중요하게 되어 국방선은 전국의 연해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거의 유명무실한 지방군인 주현군만으로는 국방이 어렵게 되어, 연해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군으로서의 진수군(鎭戍軍)을 증설하고 기선군(騎船軍)의 재건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고성 지역에서는 가배량(加背梁), 당포영(唐浦營), 번계(樊溪), 사량(蛇梁) 등이 건설되거나 강화되어 해안 방위의 거적 지역으로 부상했다.

3. 부곡제 영역의 해체와 직촌화

무인집권기 농민·천민항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몽전쟁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불어닥친 항쟁과 전쟁은 지역사회의 기존 지배 질서를 흔드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 배경에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축적된 경제적 부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수취의 강화로 말미암은 주민의 열악한 경제형편, 계서적 대민 지배방식에 따른 주읍과 속읍, 군현제 영역과 부곡제 영역 사이의 차별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고려후기 고성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 가운데 뚜렷한 것은 부곡제 영역의 해체와 재지 세력의 분화이다. 고려시대 고성 지역사회에는 부곡제 영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고성의 부곡제 영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현 고적조에서 향과 부곡 16개 지역, 『경상도지리지』에서 소 5개 지역 모두 21곳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부곡제 영역은 고려시대 어느 시기까지 기능하다가 이후 해체되어 고성의 직촌(直村)이 되었다.

『경상도지리지』에 소개된 고성의 소들은 모두 ‘망소(亡所)’로 표현하고 있어, 『경상도지리지』 찬술 이전에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 향과 부곡의 성씨는 알려져 있으나 소의 성씨는 소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른 시기에 해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6개의 향과 부곡도 조선초에 이르러서는 거의 해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향과 부곡도 고려후기에 들어와서 차례차례 해체되기 시작하여 조선초에는 모두 고성의 직촌이 되었다. 이 중에 곤의부곡과 곡산향, 녹명향은 가장 늦게 해체되었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약간씩 다르게 소개하였다.

○ 소속 향(鄉)이 둘이니, 곡산(曲山)과 녹명(鹿鳴)이요, 부곡(部曲)이 하나이니 곤의(坤義)이다.(『경상도지리지』 고성현)

○ 부곡(部曲)이 하나이니, 곤의(坤義)이요 【지금은 없어지고, 직촌(直村)이 되었다.】, 향(鄉)이 둘이니, 곡산(曲山)과 녹명(鹿鳴)이다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직촌(直村)이 되었다.】 .……곤의(坤義)의 성이 둘이니, 박(朴)과 김(金)이요, 곡산(曲山)의 성이 하나이니, 김이며, 녹명(鹿鳴)의 성이 셋이니, 이(李)·김(金)·최(崔)이다.(『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고성현)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곤의부곡과 곡산향, 녹명향에 대해 ‘금망위직촌(今亡爲直村)’이라 하여, 이들 부곡제 영역이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직촌이 되었음을 전하고, 그곳 성씨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도지리지』의 소개는 다른 점이 있다. 당시 현존하는 고성현 소속의 부곡제 영역으로 곤의부곡과 곡산향, 녹명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도지리지』는 세종 7년(1425)에 편찬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는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고성의 부곡제 영역이 『경상도지리지』 단계에서는 남아있다가 이후 어느 시기에 해체됨으로써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주석을 붙이는 형식으로 ‘지금은 없어져 직촌이 되었다.’ 고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들 세 곳 부곡제 영역은 조선초까지 기능한 것이 된다. 부곡제 영역이 해체되는 가운데에도 지역에 따라 일부는 유지되어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까지 남아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성의 부곡제 영역 세 곳이 15세기 초까지 남아 있으면서 기능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 후기 고성 지역사회에서도 부곡제 영역이 차례차례 해체의 길을 걸어, 조선초에 이르러서는 부곡제 영역 대부분이 직촌화 하였다. 이들 해체된 부곡제 영역은 면리제가 시행되면서부터 고성의 면이나 리로 편제되었다.

4. 재지세력, 토성층의 분화

고려시대 재지세력인 토성층(향리)은 형성된 시기부터 끊임없이 분화하고 있었다. 토성의 분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토성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토성의 이동, 토성 내에서 이족(吏族)과 사족(士族)의 분화 등이 그것이다.

토성이 몰락하게 되면 '망성(亡姓)'이 되었다. 망성은 고려시대의 성씨관계 문헌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15세기 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이미 없어진 성씨를 말한다. 망성의 발생 배경은 자연적으로 족세가 쇠퇴하여 후손이 단절되었거나,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인 변동으로 말미암아 몰락한 경우이다. 특히 장기간의 전쟁 상태는 토성의 몰락을 가져왔다. 여몽전쟁 시기 직접적 전쟁으로 촌락이 파괴되고, 사민입보(徙民入保)책에 따라 대거 주민 이동이 일어나면서 토성층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등 고려시대 근기(近畿) 지역에서 망성이 많이 발생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고성 지역에서는 망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 지역은 망성 발생 비율이 낮은 지역이었다. 밀성군 두야보부곡의 백(白)·노(魯), 밀성군 속현 계성현의 전(田)·신(申), 감음현 가을산소의 송(宋), 초계현 대여곡소의 표(表), 남해현 속현 평산현의 조(曹)씨 등 7개 성씨에 불과하다. 이들 망성은 속현이거나 부곡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부곡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과 같은 외적 충격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수취문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토성의 분화는 토성층이 다른 군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토성의 일부 가

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경우, 이들은 지리서에서 일반 군현은 ‘내성(來姓)’이나 ‘속성(續姓)’으로, 양계(兩界)지방은 이와 함께 입진성(入鎭姓)·입성(入姓) 등으로도 분류했다. 내성이나 속성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옮겨와 토착하게 된 성씨인데, 속성의 경우는 고려시대의 성씨관계 문헌에는 확인되지 않다가 조선초 지리지 편찬 당시에 각 도의 보고서에 기재된 성씨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성은 고려초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속성은 고려후기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 경남 지역의 토성 가운데 상당 수는 다른 군현의 내·속성으로 자리잡았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서는 내·속성을 표시하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동해온 군현을 명기하고 있어서 경남 지역의 토성이 이동해 간 군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성의 토성 가운데 특정 가계가 다른 군현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속성 등으로 분류된 것은 고성이씨와 고성 김씨이다. 고성이씨는 인근 거제로 옮겨 살아 거제의 속성이 되었으며, 고성김씨는 진주 속현 반성현의 내성이 되었다.

이처럼 고려시대 경남지역 토성층은 그 가계에 따라 분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같은 토성의 이동은 지역 내 성씨 집단을 다양화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토성층 이동의 배경에는 망성의 발생처럼 그 가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상태에 직면했거나 전쟁과 같은 외적 충격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토성층은 관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사족(士族)과 이족(吏族)으로 분화해 갔다. 토성층은 고려시대 관료를 배출하는 공급원이었다. 토성의 관료 배출은 호족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고려건국과 후삼국 통합과정에 협조적인 관계를 가졌던 지방세력의 경우 공신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국가 기구에 소속되어 관료로서의 길을 걸었다. 재지이족으로 남아 있던 토성층에서도 과거(科擧) 등 다양한 입사로(入仕路)를 통해 끊임없이 관료로 진출하여 사족으로 전환했다. 관료를 배출한 경우 생활 근거지를 경기 지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경 사족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사회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사회에도 사족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족으로의 분화는 동일 본관 성씨 내에서 가계에 따라 사족과 이족이 병존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고성 지역사회의 토성층에서도 사족으로 분화가 진행되었다. 고성의 토성 이·김·남·채·박씨 가운데 사족 진출을 이끈 것은 고성 이씨이다. 고성 이씨는 고려말까지 여러 명의 관료를 배출하였다. 우왕의 왕비 근비(謹妃)는 문하시중 이림(李琳)의 딸로, 고성이씨는 왕실혼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이황(李璜)을 시조로 하는 고성 이씨가 본격적으로 관료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7세손 이준비(李尊庇 ; 1233-1287)부터이다. 그의 아버지 이진(李璿)은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의

기회를 가졌으나 은거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준비는 원종 1년(1260) 과거에 급제한 후, 국학박사, 이부시랑을 역임하고 충렬왕대에는 상서우승(尙書右丞), 예빈경(禮賓卿)을 거쳐 좌승지(左承旨)에 올랐다. 충렬왕 4년 국왕 측근기구로 비척치[必閣赤]가 설치되었을 때, 이준비는 좌승지로서 여기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충렬왕 5년(1279)에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승진하여 장군 정인경(鄭仁卿)과 함께 원나라에 성절사(聖節使)로 다녀왔다. 같은 해 12월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된 후, 이듬해 지밀직사사 세자원빈(世子元賓)에 오르고, 충렬왕 7년 제2차 일본정벌 때에는 경상·충청·전라도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되어 병량(兵糧)과 군선(軍船)의 조달을 담당하였다. 충렬왕 10년 감찰대부로 복무하다가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올라 충렬왕 13년에 사망하였다.

이준비의 외가는 남포(藍浦) 백씨로, 외조는 예부낭중(禮部郞中)을 역임한 백경선(白景璿)이며, 국학대사성을 역임한 백문절(白文節)은 그의 외삼촌이다. 이준비의 처부는 한림학사승지를 역임한 익산 이씨 이주(李湊)이며, 이주의 아들 이행검(李行儉)의 딸이 행주끼씨 기자오(奇子敖)에게 시집가서 원 순제 황후인 기황후(奇皇后)를 낳았다.

이준비는 부인 익산 이씨 사이에서 4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이우(李瑀), 차남은 승려 정행(精行), 3남은 이숙(李壽)이고, 장녀는 밀양 박씨 박장(朴莊)에게, 차녀는 문화 유씨 유인명(柳仁明)에게 시집갔다. 막내 아들과 딸은 확인되지 않는다.³²⁾ 장남 이우는 전주와 진주목사를 역임했고, 차남인 승려 정행(1270-1355)은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이며, 3남 이숙의 관직은 양온승동정(良醞丞同正)까지 확인된다.

이우는 관삼사사를 역임한 함양 박씨 박지량(朴之亮)의 딸과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는데, 아들은 이암(李岳), 이교(李嶠), 이징(李澄)이며, 딸은 찬성사를 역임한 진주 하씨 하즙(河楫)에게 시집갔다. 이징은 승려가 되어 법호를 운암(雲菴)이라 했다.

이준비의 출사를 계기로 사족이 된 고성 이씨는 이우의 아들인 이암과 이교, 두 가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하여 고려말에는 세족(世族)으로 성장하였다.³³⁾ 이암(1297-1364)은 초명이 군해(君孩)로, 충선왕 5년(1313) 과거에 급제한 후, 충혜왕 때는 밀직대언(密直代言)을 역임하면서 국왕 측근세력으로 활동했고,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정당문학(政堂文學), 첨의평리(僉議評理) 등을 역임하였다. 충목왕 때에는 찬성사, 충정왕 때에는 좌정승을 역임하고, 공민왕 즉위 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제수되었다.

32) 『이준비묘지명』에서는 이준비의 자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나, 족보에는 이우와 승려 복구, 두 딸만 소개하고 있다.

33) 김광철, 『고려후기 세족층연구』, 동아대출판부, 1991.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의 안동 몽진에 호종하였으며, 그 공으로 호종공신에 책봉되어 추성수의동덕찬화 익조공신(推誠守義同德贊化勳作功臣)의 호를 받았다. 공민왕 13년 5월에 사망하였다.

이암은 우대연을 역임한 남양 홍씨 홍승서(洪承緒)의 딸과 혼인하여 4남 2녀를 낳았고, 측실 사이에서 1남을 두었다. 아들은 이인(李寅)·이승(李崇)·이음(李蔭)·이강(李岡)·이목(李牧)이며, 장녀는 판사(判事) 김광병(金光丙)에게, 차녀는 회양부사(淮陽府使) 조신(趙愼)에게 시집갔다.

이암의 아들 가운데 장남 이인은 종부령(宗簿令)을 역임했고, 차남 이승은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를 역임했다. 3남 이음은 상장군이었는데, 공민왕 10년 홍건적 침입에 맞서 전투하다 전사했다. 4남 이강은 과거에 급제한 후,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밀직부사(密直副使) 등을 역임했다.

이인의 아들 이길상(李吉祥), 이문자(李文資)는 족보에 각각 부사(府使)와 전서(典書)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승의 아들로 이민(李岷)·이린(李麟)·이치(李峙)가 확인되는데, 이민은 족보에 따르면 목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승의 딸들은 전주 최씨 최유경(崔有慶), 평양 조씨 조준(趙浚)과 혼인했다. 이음의 아들 이빈(李彬)은 족보에 밀직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이강은 판개성부사를 역임한 청주 곽씨 곽연준(郭延俊)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이원(李原)과 딸 셋을 낳았다. 이원(1368-1430)은 우왕 11년(1385) 과거에 급제한 후, 고려말까지 예조좌랑, 지평(持平)을 역임하다, 조선건국 후 태종 즉위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에 책봉되었다. 이강의 장녀는 안동 권씨 권근(權近), 차녀는 여흥 민씨 민개(閔開)와 혼인했다.

이암의 동생 이교는 충숙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공민왕 6년(1357) 형부상서로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다. 어사대부를 역임하다가 공민왕 10년(1360) 6월 사망하였다. 정당문학을 역임한 성주 이씨 이조년(李兆年)의 딸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이희필(李希秘)과 이림(李琳)이고, 장녀는 문하평리를 역임한 남평 문씨 문달한(文達漢)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고려말 밀직부사를 역임한 청주 경씨 경보(慶補)와, 3녀는 밀직사를 역임한 진주 유씨 유번(柳蕃)과 혼인했다.

이교의 아들 이희필은 우왕대 삼사좌사를 역임하고 양광도원수로서 왜구 침입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다. 무안 박씨 박천무(朴天茂)의 딸과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이은(李殷)은 벼슬을 확인할 수 없으며, 차남 이근(李勤)은 공양왕 4년 좌대연을 역임했다.

이교의 아들 이림은 우왕의 왕비 근비(謹妃)의 아버지이다. 이림은 공민왕 때 밀직부사

(密直副使)를 역임하고, 우왕 때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승진하였다. 우왕이 이림의 딸을 맞아들여 근비로 책봉한 후 이림을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으로, 이림의 모친 이씨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처 홍씨(洪氏)는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으로 봉했다. 창왕 1년 문하시중에 오르지만, 이성계와 주도의 공양왕 옹립과정에서 발생한 김저(金佇)의 옥으로 아들 이귀생, 사위 유염, 조카 이근 등과 함께 체포되어 유배된다.

이림은 남양 홍씨 홍승연(洪承演)의 딸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두는데, 아들은 이귀생(李貴生), 이무생(李茂生)이고 장녀는 조선건국 후 대제학을 역임한 문화 유씨 유염(柳琰)과 차녀는 판밀직사사를 역임한 충주 최씨 최렴(崔濂)과 혼인했고, 막내 딸이 우왕의 왕비 근비이다.

이처럼 고성 지역사회의 유력 토성층인 고성 이씨는 원종대부터 관료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사족층으로 분화하고 있다. 고성 이씨 전체가 사족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몇몇 가계에서 관료를 배출함으로써 사족의 길을 걸었다. 고성 이씨 성관(姓貫)안에서는 계속 지역의 토성층으로 남아 있는 재지이족과 관료를 배출하여 근기(近畿) 지역에 거주하는 재경사족(在京士族)으로 분화하고 있었다. 관료를 배출한 고성 이씨 가계는 과거 출신과 고위직자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고려말에 이르러서는 문벌인 세족(世族)으로 성장하였다. 조선건국 과정에서 이교의 가계는 타격을 입지만, 이암의 가계는 조선건국 후 공신 가문이 되는 등 문벌로서 가세를 잃지 않았다.

